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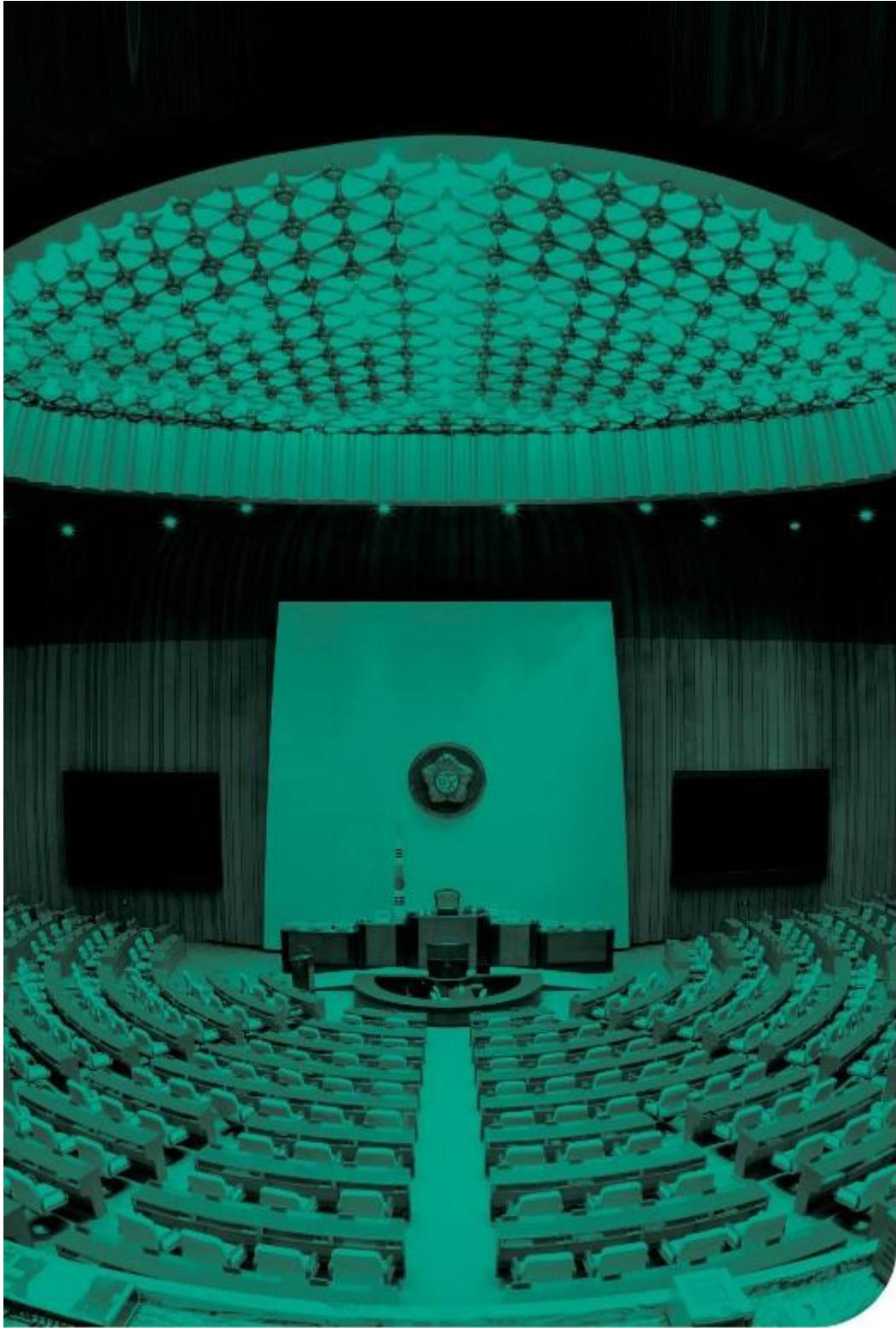


속기세

SINCE 1970

2019

제55호



4 머리말

기록, 세상을 바꾸는 힘! - 이주성

6 인사말

담대하게, 자신 있게 새로운 도전을 맞이합니다! - 김덕진

8 안녕! 우리말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 김진주 기자

16 2018 터키 인터스테노

2018년도 INTERSTENO COUNCIL & IPRS MEETING
참가 보고 - 국제부

30 현장 스케치

2019년도 제27회 전국속기경기대회 결선

33 연구논문

회의록 체계의 발전과정 고찰 - 2018 의회기록발전연구모임

52 기획특집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기술 - 백전규

64 기자수첩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 속에 담긴 속기의 가치
- 이보람 기자

69 세미나

제26회 속기학술세미나를 다녀와서 - 최조룡

74 새내기 인사

꿈을 이루다! - 강순오
길을 걷다 - 구덕영
실름 없이 달려온 국회속기사 입성기 - 한나연

86 지방의회 속기실무자 과정

2018년도 지방의회 속기실무자 과정

90 회원동산

고양시의회, 전국 기초의회 최초 의정기록관리팀 신설! - 신효경
유럽 해외국감을 다녀와서 - 황유진
아시아 해외국감을 다녀와서 - 정승

104 협회동경

제52회 정기총회

106 편집후기



기록, 세상을 바꾸는 힘!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속기협회 회장 이주성입니다.

대한속기협회는 1955년 대한속기학술협회로 설립되어 1966년 대한속기협회로 재창립된 이래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속기문화의 보급과 홍보는 물론 학술적 연구를 계속하여 협회의 설립 목적인 기록보국과 공익을 위해 노력하며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매년 변화하고 발전하며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우리 민족사의 뜻 깊은 한 해입니다.

또한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된 첫해이기도 합니다. 임시정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시점부터 학계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1937년 이후 4월 11일에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시행했다”는 기록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역사적 사료에 근거해 올해부터는 4월 11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록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부단한 대화”라고 합니다. 이는 과거를 통해 오늘의 지

해를 얻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기록이 있어 가능합니다.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사실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기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이자 미래 후손들의 소중한 정보자원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는 찬란한 기록문화의 전통이 있습니다.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의 등재를 시작으로 2017년 '국채보상운동기록물'까지 총 16건이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중국을 따돌린 첫 번째이고 세계에서도 다섯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 이 기록물들은 우리의 정신적 자산이자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속기의 중요성, 기록 보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속기는 대한민국 의정사의 기록은 물론이거니와 법정에서의 재판기록,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기록,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소리 없는 화면에 자막으로 소리를 붙여넣어 주는 역할을 하고, 대학 강의에도 자막을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역할에 자긍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실하고 묵묵히 속기인의 길을 가는 우리 회원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협회는 여러분의 일이 존중받고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이 주 성

속기계 5

담대하게, 자신 있게 새로운 도전을 맞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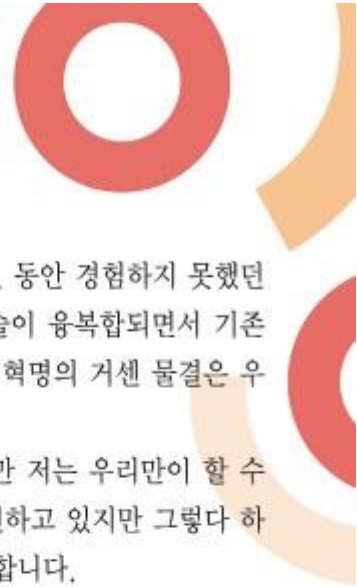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대한속기협회 이사장을 맡게 된 김덕진입니다.

우리 대한속기협회는 1955년 설립된 이래 64년이라는 기간 동안 속기문화 창달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회가 거의 유일했던 속기의 무대가 지방의회, 각급 법원, 검찰, 경찰, 교육위원회, 헌법재판소, 청와대, 각 지자체 등 공공부문은 물론 특수교육기관, 자막방송, 녹취 및 각종 법인의 주요 회의 등 민간부문까지 영역이 확산되어 기록문화가 자리잡는 데 이바지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협회는 현재 지방의회 속기실무자과정 연수 실시, 우리 협회의 정기 간행물인 속기계 발간, 한글속기학술세미나 개최, 한글속기무료강습 등 다방면으로 속기에 대한 홍보와 역량 강화 노력을 계속하여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 입상자들과 함께 참석하게 될 '인터스테노 총회 및 IPRS'를 통하여 한글속기의 우수성 및 국위를 다시 한 번 선양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최지인 이탈리아 칼리아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지금 인류는 조상들이 지구에 살기 시작한 이래 수만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격변의 세기에 진입했습니다. 모든 산업에 걸쳐 ICT 기술이 융복합되면서 기존의 틀을 파괴하는 혁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은 우리에게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 줍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속기계의 위기를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록을 하는 일은 변함없이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법원은 AI가 유사 판례를 찾아 주고 판결문 초고까지 써 준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판결문 초고의 실질적 기재사항까지 자동 작성하는 데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전 세계 카메라시장은 지난 7년 동안 끝없이 추락했지만 일본 4인방(캐논·니콘·올림푸스·소니)은 매출이 10조 원 가량 뛰었습니다. 의료 내시경, 반도체 제조장비, 이미지 센서의 핵심 기술로 재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만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헤치고 새로운 시대의 지평을 열어 가는 선두에 바로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과 역량은 충분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는 자긍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변화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대한속기협회 임원진 모두 합심하여 뛰겠습니다. 또한 우리 협회 회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이사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김 덕 진

속기계 7



안녕! 우리말



如. 슷. 為. 炭. 을. 為. 籬. 一. 에. 為. 蚕. 구. 리. 足. 用.

飯. 난. 為. 鎌. 이. 아. 為. 絲. 八. 合. 為. 鹿. 一. 也. 然.

鉦. 호. 미. 為. 鉦. 一. 下. 如. 帛. 為. 上. 去. 故.

為. 稷. 키. 為. 水. 田. 合. 為. 入. 所.

레. 為. 汲. 器. 一. 一. 為. 蠟. 피. 之. 字.

如. 墨. 為. 水. 발. 卒. 為. 跟. 그. 력. 為. 鷹. 드. 終. 則.

履. 一. 為. 蜂. 工. 如. 口. 為. 慈. 一. 為. 蠅. 一. 一. 唯.



안녕! 우리말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김진주 기자

80·90년대를 배경으로 한 TV 드라마들의 잇따른 흥행으로 한동안 복고 열풍이 대한민국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옷차림, 머리 모양, 각종 소품 등이 젊은 층에게는 신선함으로, 중년층에게는 아련함으로 다가왔기 때문이겠지요. 저 역시도 그 드라마들을 즐겨 보던 애청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문득 드라마에서 인상적인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http://tommylee.co.kr>)

이 사진을 보았을 때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셨나요? 유명 배우의 환한 미소인가요, 아니면 시엠송인가요? 저는 '쵸코렐'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단히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당장이라도 수정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힐 만큼 저의 직업병

을 자극하는 단어 '쵸코렐', 지금 이 순간도 저 단어를 마주하기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사진 속 초콜릿이 시중에 처음 출시된 해는 1975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까지 '쵸코렐'이라는 상표명으로 유통이 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초콜릿'이라는 표기로 바뀌었는데요. 이와 같이 상표명이 바뀌게 된 데에는 뒤에 서

술할 외래어 표기법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니 한글 맞춤법만큼은 북고풍의 영향에서 배제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 시절의 향수를 느낀답시고 ‘초콜릿’을 ‘쇼코렐’으로 표기했다가는 단박에 의문의 눈초리를 받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아직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쇼코렐’이 ‘초콜릿’으로 바뀌게 된 과정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 시대를 추억해 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 볼 테니까요.

“외래어 표기법이 뭐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빌려 마치 국어처럼 쓰는 단어를 말합니다. 아파트, 라디오, 버스 같은 단어들 그리고 외국 인명이나 지명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의 제3항을 보면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를 통해 외래어는 한글 맞춤법의 일부라는 점과 그 표기법에 맞게 써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립국어원에서도 외래어 표기법은 다른 어문 규정과 마찬가지로 준수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등 세계 여러 나라와의 급격한 연계 현상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이때 전 세계 각 나라의 선수 이름과 나라 이름, 도시 이름 등 엄청난 양의 고유명사를 한글로 표기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외래어 표기법의 시급한 정비를 재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밀려오는 외래어의 홍수 속에서 1986년 영어, 중국어, 독일어 등을 시작으로 2005년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그리고 마지막 러시아어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관련 표기법은

추가 · 보완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우리나라 외래어 표기법의 역사는 그 이전으로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60항에 처음으로 외래어 표기법이 규정되었고 1940년 동 학회에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안이 너무 전문적이고 복잡해서 널리 보급되지 못한 까닭에 1958년 문교부(현재의 교육부) 국어심의회에서 '로마자자의 한글화 표기법'을 제정 · 공포하여 이후 약 20여 년간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자 1977년부터 개정 작업에 착수, 1986년 1월 7일에 문교부 고시로 새로 제정된 외래어 표기법을 공포하게 되었고 이것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칼 맑스? 카알 막스? 카를 마르크스?”
“차이코프스키? 차이콥스키?”

영어에서 넘어온 웬만한 외래어 표기법쯤이야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자주 헛갈리는 비영어권의 외국 인명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Karl Marx'를 외래어 표기법을 준용하여 우리말로 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Karl'은 칼, 카를, 카알로, 또 'Marx'는 막스, 맑스, 마르크스 등으로 정말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어떤 표기가 올바를까요? 여러분, 헛갈릴 때는 뭐다? 지체 없이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다! 우선 그전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을 살펴볼게요.

◆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습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이미지 출처: 국립국어원)

위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래어는 ①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으며 ②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고 ③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쓰며 ④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⑤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습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원칙들을 토대로 했을 때 ‘막스’는 ③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Marx’ 관련 선택지는 ‘막스’냐, ‘마르크스’냐로 좁혀졌습니다. 남은 궁금중 해소를 위해 외래어 표기법 제3장 표기 세칙 중 제2절 독일어의 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r]	
1. 자음 앞의 [r]는 ‘으’를 붙여 적는다.	
Hormon[hormo : n] 호르몬	Hermes[hærmes] 헤르메스

(이미지 출처: 국립국어원)

제1항을 보니 [r]과 관련하여 자음 앞의 [r]는 '으'를 붙여 적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Karl'의 발음기호는 [karl]이므로 '카를'로 표기하여야 하고 'Marx'의 발음기호는 [marks], 즉 '마르'로 표기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막스'도 탈락!

제2항 어말 파열음

어말의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Rostock[roʃtɔk] 로스토크

Stadt[ʃtat] 슈타트

(이미지 출처: 국립국어원)

독일어에서 'x'는 [ks]로 발음이 되는데요, 독일어 표기법 제2항에 따르면 어말의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크스'로 표기하는 것이 표기법상 맞겠네요. 정리하자면 'Karl Marx'는 '카를 마르크스'로 표기하는 것이 외래어 표기법상 올바른 표기가 되겠습니다.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표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콥스키(Tchaikovsky)를 영어 발음대로 표기한다면 '차이코프스키'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로마자 표기를 할 때 영어의 발음기호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차이콥스키가 러시아인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표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러시아어 표기법이 추가되지 않았던 2005년 이전까지는 '차이코프스키'라고 표기하였으나 2005년 이후부터는 외래어 표기법 제3장 표기 세칙 제21절 러시아어 표기에 따라야 합니다.

제1항 p(п), t(т), k(к), b(б), d(д), g(г), f(ф), v(в)

파열음과 마찰음 f(ф)·v(в)는 무성 자음 앞에서는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고, 유성 자음 앞에서는 ‘으’를 붙여 적는다.

Sadko(Садко) 샛코	Agryz(Агрыз) 아그리스
Akbaur(Акбаур) 아크바우르	Rostopchina(Ростопчина) 로스토허치나
Akmeizm(Акмеизм) 아크메이즘	Rubtsovsk(Рубцовск) 룬술스크
Bryatsk(Брятск) 브랏스크	Lopatka(Лопатка) 로팟카
Yefremov(Ефремов) 예프레모프	Dostoevskii(Достоевский) 도스토옌스키

(이미지 출처: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제3장 표기 세칙 제21절 러시아어 표기 제1항을 보면 파열음과 마찰음 f(ф)·v(в)는 무성 자음 앞에서는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고 유성 자음 앞에서는 ‘으’를 붙여 적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키릴문자가 너무 생소해서 쉽사리 한눈에 들어오지 않네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슷해 보이는 ‘도스토옌스키’의 예를 들어 볼게요. 도스토옌스키는 ‘Dostoevskii(Достоевский)’라고 로마자 표기를 하는데요. 무성 자음인 ‘s(c)’ 앞에서 ‘v(в)’는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는다고 했으므로 ‘도스토옌프스키’가 아닌 ‘도스토옌스키’라고 적습니다. 따라서 차이콥스키 또한 Tchaikovsky(Чайковский)에서 무성 자음 ‘s(c)’ 앞의 ‘v(в)’는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어야 하므로 ‘차이코프스키’가 아니라 ‘차이콥스키’로 표기해야 합니다.

“외래어 표기법의 아쉬움”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과 간단한 용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은 했지만 사실 외래어 표기법만큼 원칙과 관용이 혼재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앞서의 ‘차이콥스키’보다 ‘차이코프스키’가 그리고 ‘카를 마르크스’보다 ‘칼 막스’, ‘맘스’가 우

대한민국어원
국립국어원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아... 헛갈려

리에게 더 친숙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수도였던 '리우데자네이루'
는 원칙대로 하자면 '히우지자네이루'
가 되어야 맞지만 외래어 표기법의 원
칙보다 예전에 써 오던 방식을 관용으

로 인정하면서 그 표현이 정착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모비우스 효과'로 더 익숙
한 학자 피스바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만든 학설에 본인의 이름이 아닌
'모비우스'라는 알쏭달쏭한 단어가 붙은 것도 원칙이 아니라 관용이 우선시되었
기 때문입니다.

초반에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을 좀 더 공고히 했더라면 한때 '쇼코렐', '뉴우
스', '닉우스'라고 써 왔던 것들이 지금의 '초콜릿', '뉴스'로 정착이 된 것처럼
표기의 통일을 꾀할 수 있었을 텐데 외래어를 그때그때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게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참 고
국립국어원

속기계 15

다
말
미
국
말

2018년도 INTERSTENO COUNCIL & IPRS MEETING 참가 보고

국 제 부



기 간: 2018. 10. 10. - 10. 13.

장 소: Turkey Istanbul

한국대표단: 이미정(대한속기협회 사업이사, 국회)

정영희(대한속기협회 회원, 국회)

이성만(대한속기협회 사업부장, 국회)

고경미(대한속기협회 회원, 제주도의회)

김정미(대한속기협회 회원, 제주도의회)

참가국 및 참가 인원

- 16개국 45인 참가
- Argentina, Belgium, Brazil, Czech Republic, Finland, France, Germany, Hungary, Italy, Poland, South Korea, Switzerland, The Netherlands, Turkey, United Kingdom, and USA,

INTERSTENO란



Intersteno는 다양한 종류의 속기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한 기록을 추구하는 속기인들의 협회이다. 1887년 전문적인 속기사를 중심으로 결성되었지만 기술적 변화 및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발전해 왔다. 창립 이래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가입을 하고 있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속기사뿐만 아니라 기록에 관심 있는 다양한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Intersteno는 국내 및 국제선수권대회를 지원하고 개최하며 세계 여러 국가의 회원들과 다양한 경험을 교환하고 있다. 속기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은 여러 회원국들과 회원들에 의해 지원되고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 4200명 이상의 Intersteno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협회의 소식을 받고 있다.

Intersteno 회의와 대회는 전 세계에서 최소 500명 이상 참석하는 중요한 국제대회이다. 현재 대한민국도 2009년 베이징 Intersteno부터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참가 목적

- 각국의 속기 방식 및 기록문화 관련 정보 교류 및 현황 파악
- 각국의 디지털 속기기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
- 우리나라 의회 속기시스템 홍보 및 의회 문화 교류
- 회의 개최국인 터키의 F-Keyboard 시스템 현황 파악
- 2019년도 국제속기경기대회 준비 및 점검(52nd Intersteno Congress Cagliari 13-19 July 2019)

Council Meeting & IPRS Meeting 일정

날 짜	시 간	일 정
10월 10일 (수)	Morning	Arrival of Board Members
	All day	Arrival of all participants
	13:00	Board meeting
	16:00	Jury meeting / Scientific committee meeting
	18:00	Auditing Committee Meeting
	20:00	Welcome Dinner
10월 11일 (목)	09:00	Council Meeting - 1
	12:00	Lunch
	13:30-15:30	IPRS Meeting - 1
	16:00-17:30	Dolmabahce Palace Visit
	17:30-19:30	Guided City Tour
	20:00	Dinner



날 짜	시 간	일 정
10월 12일 (금)	09:00	Council Meeting - 2 IPRS Meeting - 2
	12:00	Lunch
	13:30-17:30	Council Meeting - 3
	16:00-17:30	Dolmabahce Palace Visit
	20:00	Farewell Dinner
10월 13일 (토)	All day	All day excursion - Bosphorus Tour, berk Han i m Museum

참가 보고

1. 참가자 등록

이번 행사 개최지는 터키의 이스탄불이었다. 개최 도시에 대한 결정은 독일 베를린에서 2017년 7월에 개최된 제51차 Intersteno 총회에서 결정되었다. 행사 시작은 Holiday Inn Sisli Hotel에서 참가자 등록이 시작되었다. Intersteno 터키그룹에서는 에코백에 회의 일시 및 행사 세부일정표, 참가자 이름표, 터키 전통 기념품인 나자르 본주, 터키식 디저트 등을 웰컴 선물로 준비하여 우리 한국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다. Intersteno 터키그룹의 세심한 배려에 이번 행사 준비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도 그에 화답하여 준비해 간 대한민국 전통무늬로 된 파우치를 행사 개최팀과 참가 회원들에게 기념품으로 선물하였다.



개최국인 Intersteno Turkey Group



기념품 전달하는 이미정 단장

2. Welcome Dinner

저녁 8시에 시작된 Welcome dinner. 행사 장소인 Holiday Inn Sisli Hotel 뷔페 레스토랑에서 개최되었으며 네덜란드의 Rian Schwarz-van Poppel 회장의 환영 인사, Intersteno 터키그룹의 Emrah Kuymcu의 환영 인사, 전체 일정 등을 안내하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두 다 같이 건배하였다. 이번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중앙위원회에는 16개국에서 45인의 속기사가 참여하였으며 유럽 쪽 국가가 많이 참여하였고 미국, 아르헨티나도 참가하였다. 아시아 참가국은 한국뿐이었다. Welcome dinner를 하며 다른 나라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총회 일정을 시작했다.

3. Council Meeting - I · II

Council Meeting은 Intersteno의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이다.

2018년도 Council meeting 어젠다는 기본의제와 전문의제로 이루어져 있다. 회장의 보고가 끝난 후 회의는 Danny Devrient의 사회로 안건심의에 들어갔다. 기본의제는 집행부의 전반적인 상황보고를 들은 후에 회원들의 간략한 질문들이



이러고 표결절차를 통해 의결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또한 결산과 예산 관련 회계보고도 있었다.

주요 논의 의제는 President's report(회장 보고), 결산 및 회계 보고, Practical information on running council meeting (Council meeting 진행 정보), Next Council meeting(차기 중앙위원회 개최지 선정), Congress cagliari 13-19 July 2019(2019년도 칼리아리 총회 개최지에 대한 보고), Other matters(기타 의제) 등으로 이루어졌다. 승인이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의 설명과 자료를 본 후 회원들의 간략한 질문이 이어진 후 이의가 없으면 바로 승인되거나 표결이 필요한 부분은 표결로써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기본의제에 대한 논의가 끝난 후 Intersteno에서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대한 세부 논의가 시작되었다. 차기 Council meeting 개최지는 미국팀에서 개최 의사를 표시해 왔다. 또한 2019년도 칼리아리 총회의 경기대회 세부사항 및 일정, All-Day Excursion 등이 꽤 오랜 시간 자세히 논의되었다.



Council meeting에 표결 참가 중인 이미정 단장

4. IPRS meeting I · II

- IPRS란

IPRS(Intersteno Parliamentary Reporters Section)는 Intersteno 조직 내의 의회속기사부로서, 의회 속기사들로 구성된 조직체를 통해서 의회 속기사들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단일 국가든 연방계 국가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출범된 단체임.

< 2018년도 IPRS Meetings Agenda >

10월 11일 IPRS - I	1) Opening/Announcements. ☞ 개막식/발표 2) F Keyboard Training Methods from the Keyboarding School of Ihsan Yener(Saynur K i l i j caslan / Nurben Donmez-presentation by Emrah Kuyumcu) ☞ F 키보드 훈련 방법 Ihsan Yener의 Keyboarding 학교(Saynur K i l i j caslan / Nurben Donmez - Emrah Kuyumcu의 발표) 3) Teaching of F Keyboard with Activities(Hatice Mesci-Suleyman Demirel Unv,-Turkey) ☞ 활동적인 F 키보드의 교육 (Hatice Mesci-Suleyman Demirel Unv,-Turkey) 4) Presentation about (the reporting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Jenny Costales). ☞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발표(Jenny Costales).
---------------------	--



<p>10월 12일 IPRS - II</p>	<p>1) Presentation about recent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follow up of the presentation in Berlin) (Henk-Jan Eras / Deru Schelhaa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 음성인식 분야의 최근 발전에 관한 발표 (베를린에서의 발표 후속 조치) (Henk-Jan Eras / Deru Schelhaas) <p>2) Presentation about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the report service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Turkish parliament,(Ay.e Yedekc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키 의회의 국회 보고 서비스의 (기술적) 발전에 관한 발표(Ay.e Yedekci) <p>3) Looking ahead to the agenda of the IPRS meetings in Cagliar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리아리에서 열릴 IPRS 회의의 의제에 대한 논의 <p>4) Any other business / closu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업 / 폐막
------------------------------	--



IPRS Meeting 주제 발표 중

IPRS의 시작은 네덜란드의 Rian Schwarz-van Poppel Intersteno 회장의 개회 및 환영 인사가 있는 후 바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번 IPRS 주제발

표의 첫 번째는 터키인데 회의 개최국인 만큼 터키의 F-Keyboard의 역사와 F-Keyboard를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 꽤 오랜 시간 자세히 Intersteno 터키그룹 측에서 발표하였다.

F-Keyboard와 Ihsan Yener의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면, Ihsan Yener는 1946년 터키에서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키보드를 만드는 기회를 찾기 시작하고 터키어의 발음 특성과 많이 사용된 손가락에 가장 자주 쓰는 글자의 원리에 따라 F-Keyboard가 발명되었다. 1948년 터키 타자기 챔피언십대회를 전국에 조직하기 시작했고 1946~1955년에 프랑스와 영국시스템에서 채택하여 터키속기에 대한 새롭고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발명하였다. 1954년에 그는 타자기, 속기, 비서 및 회계를 통한 사무교육을 완전히 하기 위해 '타자기 및 비서 코스'를 설립하였다. 1955년 Ihsan Yener는 10년간의 과학연구 및 테스트를 거친 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터키어로는 가장 효율적인 키보드 레이아웃을 발명하였다. 또한 터키표준화기구에 의해 '표준 터키어 레이아웃(Standard Turkish Layout)'으로 등록되었다. 1957년 처음으로 밀라노의 Intersteno Congress와 학생과의 타이핑 대회에 참석하였고 1965년에 그의 학생(Ece Ozbayrak)은 최초의 타자기로 세계 챔피언이 되었다. F-Keyboard는 터키 앙카라대학교 교육센터에서 교육하고 있고 1954년부터 모든 학생들이 챔피언이 되기 위해 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 8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졸업했으며 대다수의 기업에서 고용되었다.

F-Keyboard 훈련과정은 F-Keyboard의 터치타이핑 기본원리, 좌석위치 규칙(팔·다리·손 등), 실용적이고 특별한 방법으로 모든 문자, 숫자, 자국 및 기타 키 교육, 정확도 등을 기반으로 한 일반 텍스트 연습 등으로 정확도와 속도를

높았다. 연수 프로그램은 160시간(교육부 인증), 192시간(챔피언 코스), 360시간(전문가 수준 타이핑), 600시간(프로페셔널 프로그램)이 있다.



터키의 F-Keyboard 교육방법에 대해 주제 발표 중

5. Dolmabahce Palace Visit (돌마바흐체 궁전 방문)

10월 11일 오전 IPRS가 끝나고 오후에는 Intersteno 참가자 전원이 이스탄불의 돌마바흐체 궁전을 방문했다. 19세기 중엽, 서구화를 통해 국운이 기울어 가던 오스만제국의 부흥을 꾀했던 압둘 메지드 1세가 건설한 궁전이다. 궁전은 4만 5000m² 면적이며 돌마바흐체의 돌마는 터키어로 '꽂았다'는 의미인데 보스포러스해협의 작은 만을 메우고 정원을 조성해 '가득 찬 정원'을 뜻하는 돌마바흐체라 불리게 된 것이다. 해안을 따라 600m가량 길게 뻗어 있어 '바다 위의 궁전'이라고도 불린다. 바로크와 로코코 양식이 혼재된 돌마바흐체 궁전은 웅장하고 화려하며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모방해 건설되었고 내부 인테리어와 정원도 프랑스식이다. 오스만제국 말기의 술탄들은 톱카프 궁전에서 이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현재도 영빈관으로 이용된다.

한편 돌마바흐체 궁전의 모든 시계가 9시 5분을 가리킨 채로 멈춰 있어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터키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인 아타튀르크의 사망 시각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돌마바흐체 궁전은 우리나라의 청와대와 같은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었는데 아타튀르크 초대 대통령은 1927~1938년 사이에 궁전에서 4년 정도 머물렀고 1938년 11월 10일 9시 5분, 집무 중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아타튀르크의 서거일이나 주요 국경일에는 아타튀르크가 머물던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된 방을 특별히 공개하기도 한다. 돌마바흐체 궁전은 지금도 국민이 방문하면 대연회장에서 국민 환영행사를 하곤 하는데 이 연회장에서 국민이 환영을 받는 것은 그야말로 터키 측에서 최고의 국민 예우를 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노무현 대통령만이 이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국민 환영행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또한 돌마바흐체 궁전은 일반 관광객 관람 시 사진촬영 금지구역이다. 하지만 Intersteno 터키그룹 측의 사전 준비로 대통령궁 안내직원의 해설과 함께 사진촬영도 허가해 줘서 화려하고 신기한 물건이 가득한 궁전의 모습을 마음껏 촬영할 수 있었다. 행사를 준비한 Intersteno 터키그룹 측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돌마바흐체 궁전 내 국무회의장 모습



국민 방문 시 환영행사 개최하는 대연회장



6. All-Day Excursion(City Tour, Bosphorus Tour, Berk Hanim Museum)

이번 회의의 마지막 행사는 Intersteno 터키그룹에서 준비한 All-Day Excursion이었다.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는데, 우리나라 대표단은 미리 준비한 버스와 유람선을 타고 참가 멤버들과 함께 All-Day Excursion에 참여하여 터키 이스탄불의 자연, 역사 및 문화의 조화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국 회원들 모두 참여하면서 속기와 기록문화 보존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각국 멤버들과 더욱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스탄불 시내의 아야소피아 성당, 이슬람 사원, 전차경기장, 보스포러스 해협 투어(Bosphorus Tour), 요로스 캐슬(Yoros Castle), 터키 최초의 개인 박물관(berk Hanim Museum) 투어 등 알찬 프로그램이었다.

■ 한국대표단 참가 Excursion

- 10/11 이스탄불 시티 투어 : Excursion 1
- 10/13 보스포러스 해협 투어 · Yoros Castle · berk Hanim Museum : Excursion 2



All-Day Excursion에 참가한 한국대표단과 각국 회원들

7. 결론

- 회의록 작성 과정에 관한 다양한 각국별 경험과 정보의 상호 교환.
- Intersteno는 기록방식을 통한 단어, 문자 등의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수필속기 또는 기계속기 방식을 통해 언어를 활자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속기현황과 한국 의회속기와 기록문화의 선진성에 관한 홍보를 하여 국제적 위상을 제고함.
- IPRS 미팅을 통해 각국의 의회 회의록 작성 과정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듣고 여러 가지 문제 발생 시 해결 방법에 대한 정보 교환.
- ASR(음성인식기술)에 대한 발전 속도, 활용도,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발제자의 발표를 통해 정보 교환.
- 터키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F-keyboard의 기술 수준, 대학교에서의 교육 방식 또는 터키의회 적용 방식에 대해 정보 습득.

8. 건의사항

- 세계 각국의 기록 수단의 다변화에 따른 대한속기협회의 능동적인 대응 방안 마련.
- 2019년도 이탈리아 칼리아리 속기경기대회의 성과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요함. (52nd Intersteno Congress Cagliari 13-19 July 2019)
- 대한속기협회 홈페이지에 Intersteno 소식란을 개설 후 e-news 등 각종 세



계대회 일정 공유.

- 국제속기경기대회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콘테스트 및 다양한 부문에서 대회(speech capturing, realtime speech capturing, text correction)가 개최되므로 홍보 및 참가율 제고.
- ASR(음성인식기술) 향상에 따른 기록 방식 및 회의록 보존 방법 다변화 방안 마련.
- 그동안 Intersteno IPRS에서 한국대표단은 연구발표를 듣는 입장이었음. 향후 대한속기협회에서는 '참가' 수준이 아닌 '참여'를 통해 직접 발제자로 나서서 한국 속기문화의 발전 수준과 한글과 함께 수필속기의 우수성과 기계속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 Intersteno 회의에 다른 나라는 고정된 멤버가 매년 연속 참가함. 따라서 대한속기협회도 국제관계 인력의 양성도 필요하므로 Intersteno 회의 담당 회원 1인(연속 참여), 신규 참석 회원 2~3인을 참가 멤버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제27회 전국속기경기대회 현장스케치

홍 보 부

I. 개최 목적

- 국제속기경기대회에 참가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속기사 선발
- 속기사 본연의 속기능력 점검 및 국제속기경기대회 경험
- 속기사 위상 제고 및 속기 저변 확대

II. 대회 개요

대회명칭	제27회 전국속기경기대회
주 최	(사)대한속기협회
주 관	(사)한국스마트속기협회
후 원	(사)한국스마트속기협회 회원사 전국 스마트CAS 교육기관 부천대학교 스마트속기과
경기방식	국제속기연맹(Intersteno)의 국제속기경기대회 규칙에 따름 - 예선 및 준결선 8분간 실시간 속기: 분당 180자부터 시작, 1분마다 20자씩 증가 - 결선 10분간 실시간 속기: 분당 154자부터 316자까지, 1분마다 18자씩 증가
예선 참가자격	전국 스마트CAS속기사 및 교육생





예선 접수처	전국 스마트CAS 교육기관
접 수 기 간	2019년 1월 28일~2월 11일까지
예 선	- 1차 예선: 2019년 2월 20일(수) 오후 3시 - 2차 예선: 2019년 2월 21일(목) 오후 3시 - 준결선 진출자 발표: 2019년 3월 4일(수)
준결선	- 2019년 3월 13일(수) 오후 3시 - 결선 진출자 발표: 2019년 3월 20일(수)
결 선	- 2019년 3월 28일(목) 오전 10시

지난 2019년 3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정관에서 제27회 전국속기경기대회 결선이 열렸는데요, 전국의 내로라하는 27명의 속기사들과 7명의 국회속기사들이 모였던 뜨거운 현장을 지금 만나 볼까요?



속기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해 국회의정관에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 속기사 여러분들! 결선을 앞둔 떨림과 열정이 빚어낸 기분 좋은 긴장감이 대회장을 물들여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합니다.



본격적인 결선이 시작되기 전 김덕진 이사장님과 이봉선 자격심사위원장님은 센스 넘치는 인사말씀과 격려말씀으로 속기사분들의 긴장을 풀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연습낭독시간, 타닥타닥하는 타자소리와 차분한 낭독소리가 대회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혹여나 작은 숨소리, 발소리조차 거슬리지 않을까 노심초사 심장이 퐁퐁 요동을 칩니다.

연습낭독이 끝난 후 10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자신과의 싸움에 임할 속기사분들을 마음속으로 응원하며 시험장을 뒤로 하였습니다.

이번 속기경기대회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셨을 속기사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록 체제의 변천과정 고찰

2018 의회기록발전연구모임

※ 본 논문은 1980년대와 2000년대를 중심으로 발췌되었습니다.

I. 서론

1. 연구의 목적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다소 진부할 수 있는 말이지만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면 이만큼 목직한 말도 없을 것이다. 그 목직함을 가장 잘 보여 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이다.

국회회의록은 <조선왕조실록>과 다를 바 없다. 500년의 긴 시간을 고스란히 담은 조선왕조실록처럼 국회회의록은 1948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회의록을 시작으로 시대의 격동과 함께 변화·발전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다.

1987년 제6공화국 헌법 개정에 따라 국정감사 제도가 부활되었고, 2000년에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5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이 의무화되는 등 시대적 요구,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국회회의록도 함께 변천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정치의 변화에 발맞춰 국회회의록의 체제는 어떻게 부응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나아가 회의록 체제의 변천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국회회의록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1980년대와 2000년대를 중심으로 본 국회회의록의 변천사

1. 1980년대, 정치 대공황에서 민주화의 기틀 마련(제10대 국회~제13대 국회)

1-1. 정치 대공황의 시작

1980년은 그 어느 해보다 격변과 충격으로 점철된 한 해였다. 1979년 10·26과 12·12 사태로 인해 1인 장기집권이 끝나면서 전국은 정치열풍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이 거듭되자 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가 취해짐과 동시에 정치활동이 전면 중지되었고 이때부터 이른바 정치의 대공황이 시작되었다.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다음날 5월 18일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으며 이를 수습하기 위해 개혁주도세력이 표면으로 등장하였다. 그 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발족되어 국회사무처는 국가보위입법회의사무처라는 이름으로 종전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2.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성립과 국회회의록의 부재

1)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성립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제8차 개정헌법 부칙 제6조에 의해서 설립된 헌법기구로서 그 구성원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었으며 국회에서 공개회의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이 다른 과도입법기구와 다른 점이기도 하다.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발족된 후 국회사무처는 국가보위입법회의사무처라는 이름으로 종전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때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여 일부 사무처 직원을 강제 면직시키기도 하였다.

2) 국가보위입법회의 회의록의 특징

국가보위입법회의 회의록의 특징을 보면 회의록 체제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다만 과도입법기구로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대의기관으로 보지 않는 견해에 따라 독자적인 회기를 갖게 됐다. 제10대 국회에서 제105회까지 열렸고 국가보위입법회의 기간 이후 구성된 제11대 국회가 제106회 국회로 시작하여 결국 국회회의록은 이 기간이 부재로 남게 됐다.

3) 국가보위입법회의 기간 중 국회법 개정과 회의록 체제 변화

국가보위입법회의 기간 중인 1981년 1월 국회법이 전문 개정되었다. 회의록 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국가보위입법회의의 구성원 전원이 각계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겸직의원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다는 이유로 본회의의 개의시간을 종전의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하였다. 그래서 1980년 12월 5일 제8차 본회의 회의록부터 개의시간을 오후 2시로 표시하게 되었다.

또한 서면질문제도를 부활시켜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폐회 기간 중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의원의 서면질문서는 해당하는 부서에 보내서 답변서가 오면 그 서면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을 회의록의 맨 마지막 부분에 서면질문·답변서로 게재했다.

〈국가보위입법회의 회의록 中 서면질문·답변서 게재 부분〉

4.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答
가. 第4條第1項第3號의 規程에 의한 適格審判對象者에 대하여는 期間의 明示가 없는 理由?	答辯者: 金永均議員 가. 期間에 拘束받지 않음.
나. 第4條第1項第3號에 適格審判對象者로서 「社會安全法 第2條의 規程에 의한 保安處分對象者」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規程의 社會安全法 附則과의 關係?	나. 社會安全法 附則과는 無關함.
다. 第4條第1項第4號에서 期間을 1968年8月16日부터 1980年10月26日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始期를 1968年8月16日로 한 理由?	다. 과거 政治活動淨化法上 政治活動이 禁止된 것이 1968年8月15日까지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로 한 것임.
라. 第8條에서 政治活動의 禁止期間을 1989年12月31日까지로 규정한 理由?	라. 적어도 80年代에는 政治活動을 못하게 하려는 것임.
마. 對象者의 公告, 適格審判請求 및 判定 등 의 節次를 이 法 施行日로부터 30日以内に 마치도록 규정한 것은 期間이 너무 짧지 않은가?	마. 政治活動이 規制된 對象者를 明白 確定할 必要가 있기 때문이며, 이 문제는 앞으로 構成된 政治刷新委員會가 期間에 맞추어 잘 處理할 것으로 봄.

1-3. 국회의회의록의 삭제

국회의회의록 삭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3선 개헌 이후부터이다. 이런 관행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국회의회의록을 조사해 보면 제11대 국회와 제1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민주화 이전 군부 독재시절에 주로 삭제가 많이 되었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종종 삭제되는 부분이 있었다.

헌법에서는 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을 보장하고 있었으나 국회의원의 발언이 자유롭지 못하였고 또한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삭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같은 발언이 많이 삭제되었다.

이같은 내용은 비상국무회의 때 제15차 국회법 개정 시 의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면서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의장이 회의록 불게재 발언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의원의 회의록의 일반 배부 및 회의록 복제를 허가하게 하였으며 질서 문란 및 국회 위신 손상발언 시 마이크 및 속기 중단을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1988년 민주화 이후에는 회의록 삭제가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제13대 국회는 5공 비리 청문회,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등의 국회 활동이 TV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었으므로 국회 내의 권력비판 발언이 삭제되는 경우는 현저히 줄었고 대신 의원들의 상스러운 말이나 상식 이하의 발언, 인신공격 등의 발언이 주로 삭제되기 시작했다.

제11대 국회와 제12대 국회는 광주항쟁을 겪으면서 정치적 지위가 매우 취약하였으며 의원의 원내발언에서조차 체제의 본질이나 대통령과 그 친인척 인사를 비판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삭제되는 일이 많았다. 우리 현대사에서 본다면 이 시

기는 그야말로 국회회의록의 암흑기라고 볼 수 있다.

1-4. 청문회 제도의 도입

1987년 6월 민중의 힘에 의해 권위주의 독재는 종말로 치달았고 그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의개헌이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새 헌법에 맞춰 구성된 정부는 민주화라는 민의를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 민주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구시대 비리와 비행의 청산, 즉 5공 단절에 대한 역사적 요청에 부응하여 헌정사상 초유의 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민주화 이후 의회정치의 활성화로 인하여 국회회의록도 번영기를 맞이했다. 회의록 체제 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연간 회기 일수의 폐지로 많은 회의를 하게 되어 양적으로도 증가하였고, 청문회 제도 도입 등으로 TV와 라디오를 통해 생중계 되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면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을 하였다.

1-5. 국정감사 제도의 부활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인해 국회의 국정감사 제도가 부활되어 1988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가 16년 만에 다시 실시되었다.

1988년 2월 25일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 출범 이후 4월 26일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우리 헌정 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국회가 등장하였다. 이로써 정부 여당에 의한 독주가 사라지고 국정감사권의 부활을 요청하는 의견이 많아 국정감사제도가 부활된 것이다.

국정감사제도 부활의 첫해인 1988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기회 집회일 다음 날부터 감사가 실시되어야 하는데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개최 관계로 국정감사 실시 시기가 연기되었다. 그리하여 1988년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중앙과 지방에 걸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삼청교육대의 사망자 등 전 시대의 비리 등이 수없이 지적되고 발견되어 민주화 이후 활성화된 의회의 행정부 통제수단의 하나로서 국정감사의 기능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행정부의 독선·탈법·부정부패·편의주의 등을 견제할 수 있는 국정감사의 기능이 부각되었다.

1-6. 민주화의 기틀 마련과 국회회의록의 위상 강화

1988년에 시작된 청문회는 영원히 은폐될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비리와 음모, 밀담들이 부분적으로나마 폭로되고 밀실정치를 공개정치로 유도, 대중의 정치참여를 드높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그와 동시에 청문회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연일 밤을 새워 가며 현장에서 시종 일관 기록업무를 담당하던 국회속기사의 모습이 TV로 전국에 생중계되어 당시 속기사와 국회회의록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드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2. 2000년대, 국회회의록의 다변화(제16대 국회~제20대 국회)

2-1. 인사청문회의 도입

인사청문회법안은 김무성·천정배 위원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으로 2000년 6월 19일 제2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으며, 동일 제4차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회안대로

이의 없이 의결되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00년 6월 26일과 27일 이틀간 헌정 사상 최초로 이한동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그 후 2002년 7월 31일 장상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2002년 8월 28일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으나 두 번 모두 국회 인준을 얻는 데 실패하였다.

2003년 3월 개정국회법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 바 있으나 그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계속 대두되어 왔다.

2005년 7월 국회법 개정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국무위원에 대하여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후 몇 차례의 법 개정 과정을 거쳐 인사청문회 대상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 임기개시 전에 지명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도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은행총재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였다.

2-2.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의 의무화

소위원회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법안 및 의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는 회의체이다. 그러나 종전의 국회법에서는 소위원회 회의록에 관하여 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는 소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속기방법에 의

하지 아니하고 요지만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소위원회에서 안건의 주요한 내용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됨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아 안건심사의 핵심적 과정을 알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2005년 8월 개정국회법에서는 요지기록 방식이 가능하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소위원회에 대하여도 속기방법으로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다만 전면적인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위한 실무 준비 등을 감안하여 그 시행일을 2006년 6월로 유예하였다.

2-3. 전자민주주의 구현

1) 전자회의록

1998년 국회회의록시스템을 개발한 후 일반 국민에게 인터넷으로 회의록 서비스를 실시한 것은 2000년 8월 28일부터다. 전자회의록은 PDF 파일 또는 텍스트 파일로 제공되며 국회회의록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이 회의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 직접 내방하여 배부받아야 했던 책자회의록의 단점을 극복하게 되었고, 원하는 국민 누구든 시공간의 제약 없이 회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정치와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크게 고조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

2) 영상회의록

국회영상회의록 서비스란 회의 전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언제 어디서든 회의 진행 과정을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게 한 서비스를 말한다. 2004년 이후 국회정

보화 환경기반 조성사업을 고도화하면서 영상회의록이 도입되었다.

현재 국회는 회의영상을 안건, 발언자, 전자회의록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국민이 굳이 국회를 찾지 않더라도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보고 감시하며 정책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가져왔다.

3) 다양한 미디어 자료의 활용

2005년 9월 디지털 국회 본회의장 시스템의 완성은 본회의장에서 동영상, 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미디어 자료를 고화질 전광판에 시연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점차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장에도 미디어를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국회 회의에서 영상자료의 활용은 보편화되었다.

회의장에서의 미디어 자료 활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국회회의록에도 다양한 상황표기를 쓰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들은 보다 섬세하게 회의상황을 알 수 있게 되었다.

< 미디어 자료 활용 시 상황표기 방법 예시 >

예시문

●●(영상자료를 보며)

●●(녹음자료를 들으며)

예시문

- (00시0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
- (00시0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
- (00시00분 녹음자료 재생개시) ●
- (00시00분 녹음자료 재생종료) ●

2-4. 회의록의 한글화

1) 의원명의 한글표기

1998년 회의록의 한글화가 시작되었으나 의원명은 여전히 한자로 기재하고 있었다. 이후 2003년 10월 16일(제16대 제243회 제9차 본회의)부터 의원명도 한글로 기재하기 시작하였으며, 다만 한자로 쓰이길 원하는 의원들에 한해서 기존 대로 의원명을 한자로 기재하였다.

2) 회의록 표제부의 한글표기

국민들의 회의록에 대한 접근성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19대 제308회 국회부터는 회의록 표제 부분의 한자까지도 전부 한글화되어 법안명이 한자이거나 단어의 뜻을 좀 더 명확히 보여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한자 이외에는 회의록에서의 한자 사용은 없어지게 되었다.

〈 회의록 표제부의 한글화 전 〉

제307회 - 제1차(2012년5월2일) 1

第307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1 號

國會事務處

2012年5月2日(水) 午後 2時

議事日程

1. 제307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유계종) 추천안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의록 표제부의 한글화 후 〉

제308회 - 제1차(2012년7월2일) 1

제308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1 호

국회사무처

2012년7월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국회의장·부의장 선거
2.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5. 안전명 띄어쓰기

국회사무처 예규 제18호(05.01.01. 시행) '법률용어의 표준화기준'에 따라 2005년 1월 1일 이후 제·개정되는 법률의 제명은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 쓰도록 개정하였다. 이후 실제 적용은 제17대 국회 제252회(2005년 2월 1일) 임시회부터 시작되었다.

2-6.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불게재

공개회의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거에는 이를 그대로 회의록에 게재하여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국회회의록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비하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련법 규정에 의거하여 별도의 불게재 요청이 없더라도 배부회의록에는 그 개인정보의 일부를 게재하지 아니하고 보존회의록에 밝혀 게재하고 있으며 회의 영상에도 묵음 처리를 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법에 의하여 성명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배부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고 보존회의록에 밝혀 게재하고 있다.

이 경우 성명인 경우에는 숫자 '0'으로,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는 영문 소문자 'x'로 변환 입력하고 있다.

〈 제17대 국회 2005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中 〉

○위원장 이석현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증인 이병진 740926-xxxxxxx, 경기도 광명시 광명3동 146-1입니다.
○위원장 이석현 감사합니다.
또 김영민 증인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성함과 주민번호, 주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영민 김영민 회계사입니다.
610726-xxxxxxx, 주소는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늘푸른벽산아파트 102동 401호입니다.
○위원장 이석현 노석미 증인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노석미 노석미이고요. 580119-xxxxxxx, 강남구 역삼동 729-35 클래티늄아파트 501호입니다.

2-7. 본회의 회의록의 개의·속개·산회 시 재석의원 명단 기재

재석의원 명단 기재는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부터 시작되었다. 의사정족수를 채워 예정된 시각에 회의를 열고자 시작된 제도이나 본회의 회의록에 개의 시 재석의원, 속개 시 재석의원, 산회 시 재석의원이 세밀히 기재되어 어느 의원이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 제20대 국회 제362회 제2차 본회의 출석의원 명단 〉

○출석 의원(284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중략)			
○개의 시 재석 의원(189인)			
강병원	강석호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중략)			
○속개 시 재석 의원(195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경대수	곽대훈
(중략)			
○산회 시 재석 의원(197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경대수	곽대훈
(중략)			

2-8. 화상회의

화상회의란 장소를 달리한 곳에 있는 회의 참석자 간 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내에서도 2014년도에 화상회의를 위한 제5회의장(영상회의장)을 신설하

였고 제19대 국회 제33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첫 화상회의를 실시하여 국회회의록에도 화상회의에 대한 상황표기를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

〈 제19대 국회 제33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中 〉

(09시46분 개의)

(09시46분 화상회의개시)

○위원장 박주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영상회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업무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 영상회의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부응하여 교육부 소관 결산을 의결할 예정인 오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는 국회와 정부 세종청사를 연결한 영상회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양 간사와 합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영상회의는 국회 차원의 정식 회의로서는 처음으로 진행되는 영상회의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으므로 위원님들과 또 회의 관계자 모두는 이에 차금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중략)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9분 화상회의종료)

(11시49분 산회)

2-9.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의 사전적 의미는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장시간 발언함으로써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가장 처음 실시한 사람은 1964년 당시 야당 초선 의원이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였다.

이후 1973년 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필리버스터 제도는 폐기되었다가 2012년 5월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포함

되면서 부활하게 되었다.

2016년 2월 23일 필리버스터 제도가 부활된 이래 첫 무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 38명은 테러방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김광진 의원을 필두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였고 2월 23일 19시 5분경부터 3월 2일 19시 30분경까지 9일 동안 토론을 이어 나갔다. 시간상으로 약 192시간 25분간 발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1일 1차 회의록 체제를 유지해 오던 회의록에도 9일간 이루어진 무제한 토론에 관련한 새로운 표기방법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표제부에 '[국회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제한 토론 실시로 00월00일 개의회하여 00월00일 산회하였음]'이라는 표기와 함께 24시가 경과할 때마다 날짜와 '(24시 경과)'라는 상황표기를 넣어 줌으로써 시간의 경과를 그대로 회의록에 남겼다.

또한 한 의원이 장시간 발언함에 따라 각 의원의 발언을 쉽게 회의록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회의록 표제부 상정된 안전란에 발언자의 성명과 페이지를 적시함으로써 구독자로 하여금 편의성을 제공하였다.

〈 무제한 토론 시 표제부 및 24시간 경과 표기 예시 〉

제340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7 호

국회사무처

2016년2월23일(화) 오후 6시

[국회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제한 토론 실시로 2월23일 개의회여 3월2일 산회하였음]

무제한 토론 의원

· 김 경 진 의원	6
· 문 병 호 의원	57
· 은 수 미 의원	74
· 박 원 석 의원	164
· 유 승 회 의원	254
· 최 민 회 의원	294
· 김 계 남 의원	342
· 신 경 민 의원	406
· 강 기 정 의원	455

이후의 14·15·16·17·18·19조 부분은 크게
차이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
어서도 각 당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월23일 24시 경과)

Ⅲ. 결 론

지금까지 1980년대와 200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의 변화에 따라 국회회의록 체제가 어떻게 변천하여 왔는지 살펴보았다.

역사의 소용돌이마다 회의록 체제에 굴곡은 있었지만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은 점은 민주주의의 산 증인이자 증거로서 국회회의록이 존재해 왔고 한걸음씩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었던 것이다. 속기사들은 소란스럽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회의의 시작과 끝을 기록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역사적 사실을 증거로 남겼다.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역할 증대에 따라 기록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회의록은 생생한 의정사료로서의 문헌 구실을 하는 동시에 국회 회의의 유일한 공적 기록으로서 회의 중에 논쟁이 있을 때에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었고, 날날이 작성된 회의록은 의사진행의 선례자료가 되기도 하였으며, 발언자 간 분류의 실마리가 되기도 하였다.

앞으로 국회회의록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알린다는 의미에서 국민의 회의록 공개 요구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국민에게 힘이 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여 국민에게 다가가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회의록으로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속기사들과 관심 있는 이들의 행보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IV. 참고문헌

- 대한속기협회(1998), 『한국속기 50년사』
국회사무처(1998), 『대한민국국회 50년사』
국회사무처(2008), 『대한민국국회 60년사』
김영명(2006), 『한국의 정치변동』, 을유문화사
오명호(1999), 『한국현대정치사의 이해』, 오름
김삼웅(1999), 『해방후 정치사 100장면』, 가람기획
신정현(2002), 『한국 정치제도의 개혁: 정당과 국회를 중심으로』, 집문당
김현우(2001), 『한국국회론』, 을유문화사
유희연(2009), 『한국정치와 국회회의록 체제의 변천』,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윤대근(2011), 『국회회의록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김기섭(2012), 『지방의회 회의기록물 매체에 관한 연구 : 영상회의록을 중심으로』, 동의대 석사학위논문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기술

박 전 규



1991년~1999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2000년 Lernout & Hauspie Korea 책임연구원

2001년~2002년 Carnegie Mellon University 객원연구원

2002년~2004년 동아시테크(주) 이사/기술연구소장을 거쳐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음성지능연구그룹에서 책임연구원/PL로 근무 중이다.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계학습, 자연어처리, 외국어학습 기술에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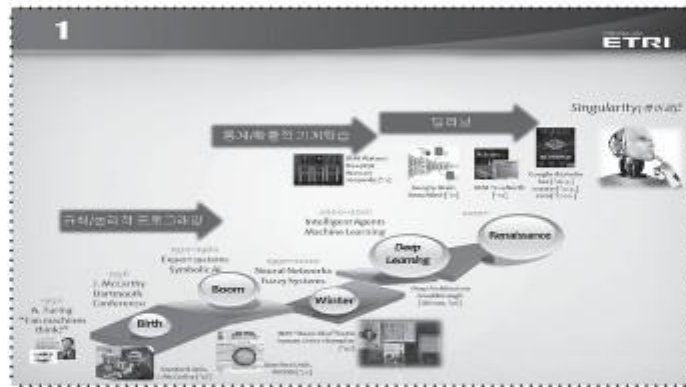
I. 음성인식 기술의 개요

음성은 사람 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방식으로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발명된 이래 끊임없이 과학자들의 연구개발 대상이 되어 왔다. 현재 음성인식 기술은 비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스피커 및 스마트폰, 대화로 운전이 가능한 자율운전자동차, 상담원을 보조하는 콜센터 등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 녹아들어서 서비스화되고 있는 중이다.

인공지능의 주요한 기술 영역으로서의 음성인식 기술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발성한 모든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으며(dictation), 외국인이 자기 나라 언

어로 발성한 것을 그대로 우리말로 통역해 주거나 그 반대로 해 주는 자동통역 (automatic interpretation), 원어민과 대화하듯이 영어 회화를 가르쳐 주는 컴퓨터 언어교사(language tutor), 말만 하면 알아서 일정 관리 및 대화 상대 등을 해 주는 지능형 동반자 등의 개발을 궁극의 목표로 한다.

II.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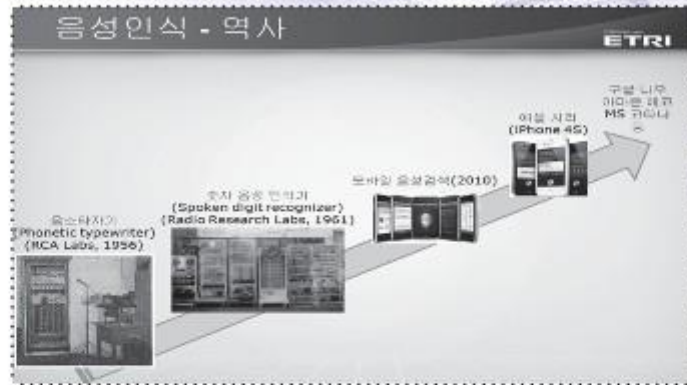
인공지능 기술이 1950년대에 태동(Birth)하고 1990년대에 암흑기(Winter)를 맞았던 것과 유사하게 음성인식도 50년 이상의 긴 시간을 통해 몇 차례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부침을 겪으며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음성인식 기술의 성공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범용 GPU 등에 기인하는 하드웨어의 비약적 발전이 그 한 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50년대 RCA에서 개발된 음소타자기나 1960년대에 개발된 숫자 음성 인식기는 규모나 계산 능력 면에서 수백 배나 작은 스마트폰의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

는 성능으로 훨씬 낮은 수준의 인식 대상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구글, 삼성 등에서는 CPU나 메모리 수준이 통상의 서버급보다 훨씬 열악한 스마트폰 상에서조차 수백만 단어가 인식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근래 인공지능 기술의 근간이 되는 딥러닝(Deep Learning) 및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 기술이 가장 효과적임이 입증된 분야 중의 하나가 음성인식 기술이다. 딥러닝 기술의 핵심적인 알고리즘은 이미 많은 부분 2000년대 이전에 개발되어 있었는데 하드웨어나 알고리즘 문제로 추운 시기를 겪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범용 GPU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 그간 신경망 알고리즘에서 문제시되었던 몇 가지 난제들이 해소되면서 음성인식과 영상인식에 매우 효과적인 심층 구조의 신경망이 개발되고 실세계 응용 문제에 적용되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여기에 정보통신 기술과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결정적으로 심층신경망 기반의 딥러닝에 필요한 빅데이터가 활용 가능해짐에 따라서 음성인식의 현실적인 문제가 풀리며 다양한 사업화 및 상용화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Ⅲ. 음성인식 기술의 발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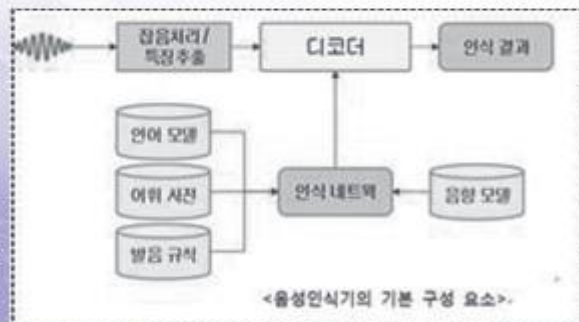
음성인식 및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배경에는 오픈소스에 기반하는 생태계의 활성화가 들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딥러닝과 관련된 오픈소스 기반의 도구들에는 음성인식에 특화된 Kaldi(미국의 존스홉킨스대학) 외에 Caffe(미국 버클리대학), Tensorflow(구글), Theano(캐나다 몬트리올대학), Torch(페이스북), CNTK/DMTK(마이크로소프트), cuDNN(엔비디아) 등 우수한 개발 도구들이 있다.

한편 음성인식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성인식은 사람들이 음성거리는 식당, 회의실, 버스나 지하철 등과 같은 환경에서는 매우 낮은 음성인식 정확도를 보이는 등 개선할 점이 많다. 다양한 잡음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라도 이렇게 음성인식이 어려운 이유는 먼저 동일한 사람인 경우에도 나이가 들어가거나 병적인 요인에 따라 목소리에 다양한 변이요인이 발생하며 동일한 단어라도 감정 및 사투리 등의 영향에 따라 사람마다 발성이 다르고 문맥에 따라 발성이 달라진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음성인식 기술은 기술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은 분류가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화자 종속에서 독립으로, 고립어에서 연속어로, 소용량 어휘에서 대용량 어휘로 갈수록 높은 난이도를 보인다. 음성인식 기술은 등록이 되지 않은 단어 또는 어휘는 인식이 어렵고 심한 사투리가 포함되어 있어도 인식이 곤란하게 된다.

		기술 분류	응용 분야
국문 화자	화자 종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자-음독한 특정 화자 높은 인식 성능 	속대문 보이스 다이얼링
	화자 독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된 화자 대용량 화자 DB 	Directory assistance
단문 형태	고립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립 단어 단어 전후의 특정 문맥 	보이스 메모리 카드 한글음 (일대 다대)
	연속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결 단어, 연속 문장, 대문자 다양한 발음 변이를 고려한 큰 어휘집, 워딩어 인식 	0-값형 자동화 음성 dictation 음성검색
어휘 크기	소용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백~수천 단어 일대 문맥, 문맥 독립형 모델 	원도우 제어 TV 제어
	대용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만 단어 이상 문맥을 고려한 sub-word(형태소) 형태의 모음 단어 	자동 번역 음성 검색 음성 학습

IV. 딥러닝 기반의 음성인식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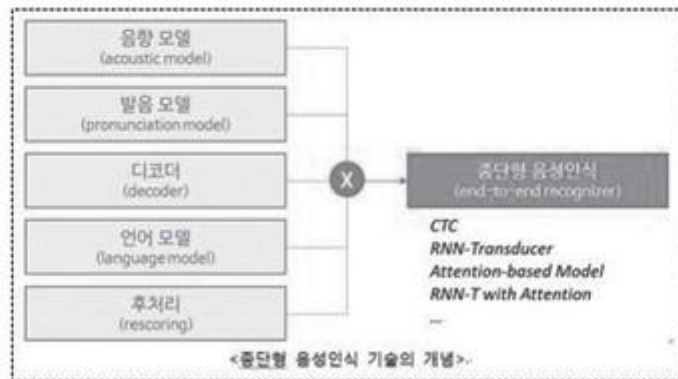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음성인식기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음성인식기는 크게 언어 모델과 음향 모델이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지식원

(knowledge source)을 사용하여 음성 신호로부터 문자 정보를 출력하게 되는데 이때 개념적으로 음성 신호를 문자 심벌로 해석한다는 차원에서 음성인식 알고

리즘을 디코더(decoder)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음향모델(acoustic model)은 우리말의 ‘ㄱ’, ‘ㄴ’, ‘ㄷ’, ..., ‘ㅏ’, ‘ㅑ’, ‘ㅓ’, ... 등의 소리 단위를 딥러닝 기술로 학습해서 지식화해 놓고 디코더에서 사용하게 된다. 언어모델은 단어나 어휘적 쓰임새를 학습해서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라는 어휘 다음에 ‘는’, ‘이’, ‘를’ 등과 같은 어휘가 어느 정도의 확률로 나타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통계적 모델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딥러닝 기반의 언어모델도 최근 들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 자음접변, 구개음화 등의 일반적인 음운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발음 규칙이 사용되며 인식 어휘 자체를 등록하기 위해 어휘 사전이 사용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개별 지식원이나 처리 모듈을 하나의 통합된 심층신경망 프레임워크로 학습하고 인식하는 종단형(end-to-end) 음성인식 기술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과거 음성인식 기술은 조용한 환경에서 아나운서가 국어책을 읽듯이 발성하는 음성을 대상으로 하는 낭독체 음성인식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으나 딥러닝 및

잡음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현재는 사람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 음성을 인식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기술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음성인식의 원천기술은 국내외적으로 그 수준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글은 음성검색(voice search) 분야, 마이크로소프트는 스위치보드(switchboard) 등의 시험 영역에서 음성인식 오류율이 5% 내외로 이미 인간보다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기술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다양한 사투리나 배경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 또는 회의하는 환경에서의 음성인식은 여전히 30% 이상의 오류율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화체 음성인식이 어려운 이유는 비정형 자연어 발성과 발성 중첩 등이 그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니까', '음', '아, 참' 등등 해야 할 수 없이 많은 간투사가 수시로 사용되며 더듬거림, 어휘의 도치 현상, 동일 어휘의 반복이나 어휘적 단락(끊어짐), 재발성 등으로 인한 비문법적인 비정형 발성이 빈발하는 것을 통칭하여 비정형 음성(unstructured speech)이라고 한다. 한 사람이 말을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할 경우 발성상 중첩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한 음성인식이 매우 곤란하므로 정확도 저하 요인이 된다.

한편 음성인식 기술은 매우 계산 소모적인 태스크로서 많은 양의 계산과 메모리 등 자원이 필수적이다. 대규모 IT기업에서와 같이 수많은 서버를 동원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음성인식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특정 기업의 콜센터 또는 고객센터처럼 보안 등의 이슈로 인해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수의 서버를 운용하는 경우 서버당 처리 가능한 통신 채널 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기 때문에 단일 컴퓨터 서버에서 몇 개까지의 음성인식 디코더가 실행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동시접속 (concurrency) 성능을 최대화하도록 음성인식기를 구조적으로나 계산적으로 효율화·최적화하는 기술도 중요한 것이다.

현재 다양한 수준의 빅데이터가 존재하고 활용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데이터에 대한 갈증이 크다. 예를 들어 특정 카드회사에서 누적된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은 유사한 업종인 보험회사에서조차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할 수 있고 의료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용자 경험이 법률 분야에서는 사용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적으로 언어모델이나 음향모델을 정규화하거나 적응하도록 하는 학습 메커니즘을 동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적응 및 정규화 방식은 여전히 전문가가 개입해야만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가 누적됨에 따라 스스로 학습해서 지식을 구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딥러닝 기술을 응용하기도 한다. 즉 향후에는 인간의 뇌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형태로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왼쪽 그림은 가우시안 믹처 모델 기반의 음성인식 기술(GMM-HMM; Gaussian Mixture Model - Hidden Markov Model)과 딥러닝 기반의 음성인식 기술(DNN;

Deep Neural Network)을 방송 대담 프로그램, 학술 발표, 학술 토론 데이터를 대상으로 성능 평가한 결과이다. HMM' 14는 기본 엔진의 성능, HMM' 15는 잡음처리 및 고성능 음향 모델을 적용한 엔진의 성능, DNN' 15는 딥러닝 기반의 음성인식 기술의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는 쪽이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음성인식 기술은 장기적으로 영상, 문자, 음성, 제스처 등의 단일한 모달리티(modality)를 독립적으로 학습 및 인식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텍스트, 영상, 음성 등의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동시에 학습 및 인식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음성 신호와 입술의 움직임은 동시에 사용해서 고성능 음성인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음성 신호에서 특정 어휘를 인식한 다음 단어가 문맥적으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어떠한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대화를 진행하는 진정한 인공지능이 구현될 날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V. 음성인식 기술의 주요 응용 분야

음성인식의 응용은 현재 잘 알려진 인공지능 비서, 행선지를 안내해 주는 지도 서비스, 차내 비서 격인 인포테인먼트, 콜센터, 고객센터 등 음성분석 기술을 위주로 활발하게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아직 그 성능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민간 및 공공 부문의 회의록, 강의록, 속기록 등에 음성인식 기술이 적용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분 야	내 용	예 시
인공지능 비서 및 스피커	구글 홈, 아마존 에코, SK 텔레콤 누구, KT 기가지니, 카카오미니, 네이버 클로바 등 음성 대화를 통한 음악 스트리밍, 날씨 및 일정 등의 생활 정보, 백과사전 등의 지식 정보, 영어회화 등 어학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수준의 제공	 SKT누구 KT기가지니 구글 홈 네이버 클로바  아마존 에코 애플 홈팟 카카오 미니
통화 녹취 서비스 (콜센터 및 CRM 응용)	콜센터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음성인식하는 기술로 고객응대, 회의/오디오/영상물에 대해 음성-문자 변환(STT) 서비스 및 CRM 등에 활용. 금융, 제조, 공공 등 콜센터 및 고객센터에서 활용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및 자율주행차	애플 카플레이,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등 인공지능 비서 기능과 지도 등을 서비스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회의록, 녹취록, 강의자막 서비스	민간 및 공공 부문의 각종 회의 및 대화 내용을 음성-문자 변환하여 회의록, 녹취록, 자막 서비스 등을 제공	 미래형 미팅룸 구축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비 (출처: 마이크로소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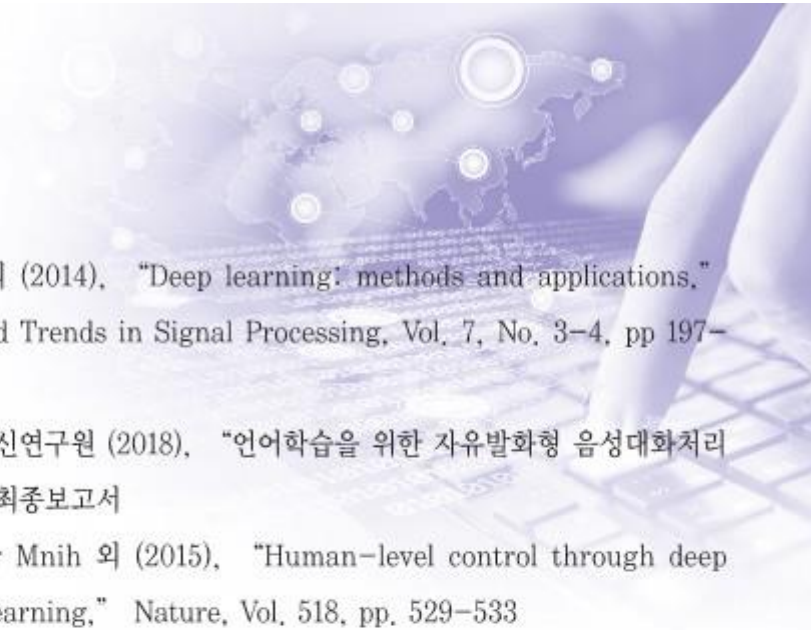
VI. 맺음말

딥러닝으로 촉발된 음성인식의 기술 혁신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꾸준한 성능 향상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로 우리 현실에 생활화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영화 '스타워즈(Star Wars)'나 '그녀(Her)'에서 나오는 이상적인 기술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음성인식 기술은 인공지능, 하드웨어, 통신 및 인터넷,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 확산과 맞물려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이다. 음성인식을 전면에 내세운 인공지능 스피커가 등장했고, 다양한 스마트 가전기기에 음성인식 기능이 적용되고 있으며 음성인식이 적용된 스마트 차량도 상용화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음성인식의 궁극은 사람과 모든 영역에 대해서 자연스레 의사소통하고 대화록을 작성해 주고 언어장벽이 없는 세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아직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산적한 연구개발 현안이 있다. 음성인식 기술 발전을 위해 역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사람이며 이는 정부·산업계·학계가 공동의 시너지를 내야 하는 부분이라서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 
- [1] Li Deng 외 (2014), “Deep learning: methods and applications,”
Foundations and Trends in Signal Processing, Vol. 7, No. 3-4, pp 197-
387
-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8), “언어학습을 위한 자유발화형 음성대화처리
원천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 [3] Volodymyr Mnih 외 (2015), “Human-level control through deep
reinforcement learning,” Nature, Vol. 518, pp. 529-533
- [4] David Silver 외 (2016),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 deep
neural networks and tree search,” Nature, 2016, Vol. 529, pp. 484-489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 속에 담긴 속기의 가치

이보람 기자

1919 그리고 2019

2019년, 올해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100주년을 맞았다. 1919년 4월 11일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두운 일제 치하의 시간 속에서도 자주독립의 불꽃을 밝혔던 우리 민족 모두의 자긍심이었고 또 자존심이였다. 대한민국의 정부이면서도 대한민국 영토에 자리잡지 못하고 '임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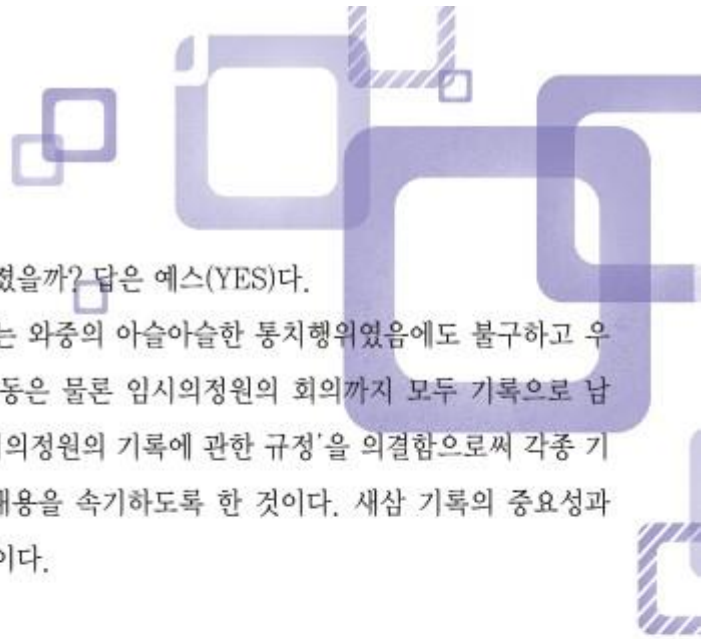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엠블럼

는 꼬리표가 붙어야 했을 만큼 임시정부는 위태로웠지만 의회기구까지 갖출 만큼 그 기틀만은 견고했는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바로 그것이다.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최고 대의입법기관으로서 각종 법률과 규칙 등을 제·개정하였고 정부의 각종 통치행위 전반에 관한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등 1945년 해방 때까지 임시정부의 의결권을 가진 실질적인 국민합의체로 현재 우리 국회가 수행하는 역할들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당시 임시의정원에서도 오늘날과 같이 회의 내용을 속기하고 회



의록을 만드는 일이 이루어졌을까? 답은 예스(YES)다.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는 와중의 아슬아슬한 통치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은 임시정부의 활동은 물론 임시의정원의 회의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겼다. 1920년 3월 5일 '임시의정원의 기록에 관한 규정'을 의결함으로써 각종 기록을 생산하고 모든 회의 내용을 속기하도록 한 것이다. 새삼 기록의 중요성과 그 무게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임시의정원 문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진 문서들이 바로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이다. 임시의정원 문서는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상해에서 입법부 역할을 했던 임시의정원 활동과 관련된 중요 문서들 일체를 지칭한다.

임시의정원 문서에는 1919년부터 1945년 8월 17일 임시의회까지 27년간 총 39회에 걸쳐 개최된 임시의정원의 회의에 대한 기록은 물론 헌법의 제정 및 개정, 각종 법률안 심의 의결, 대통령선거, 예·결산 의결, 국무원 및 주외대사 임명 동의, 선전 및 강화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 국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 대통령과 국무원의 탄핵 및 위법행위 조사 등 임시의정원의 활동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임시의정원 문서가 특히 더 가치 있게 평가받는 이유는 이 문서가 임시의정원 뿐만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 및 변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현존하는 유일의 원본 기록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문화재청의 항일독립유산 문화재로 등록되기도 하였다.

총량 1,323매에 달하는 임시의정원 문서는 세 차례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한 최장수 의장이자 임시의정원의 마지막 의장이었던 홍진 선생이 1945년 해방을 맞아 한국할 때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고 이후 유족들이 보관하다 1967년 3월 해당 문서 전체를 국회도서관에 기증하였다.

현재 국회도서관 1층에는 홍진 선생의 기념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지난 2018

년 11월 23일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홍진 선생의 흉상이 이곳 기념관에 설치되기도 했다.



의정원문서에 첨부된 해임청원서, 사직서, 청유서, 사면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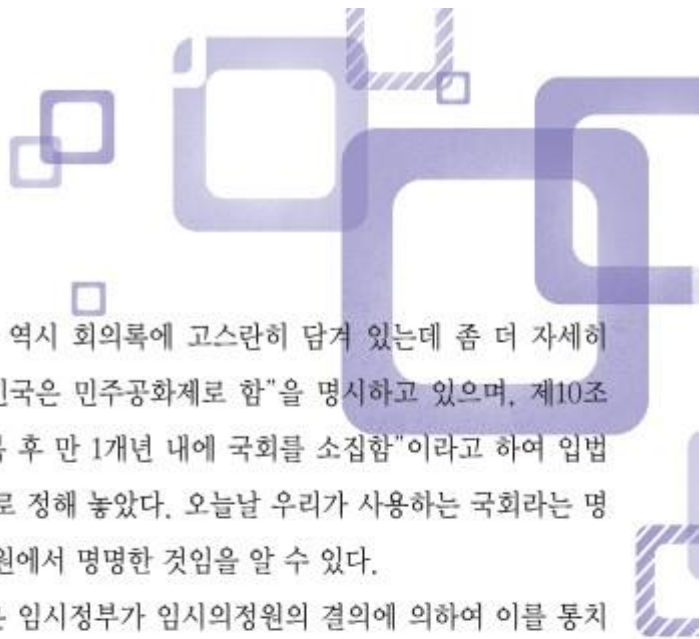
임시의정원 문서 속 흥미로운 이야기

임시의정원 문서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임시의정원 회의록이다. 임시의정원 최초의 회의가 1919년 4월 11일에 열렸는데 이날의 제1회 회의록



의정원문서에 첨부된 대한민국임시헌장

에는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하고 공포한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은 모두 10개 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한국 최초의 헌법이라는 역



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의 내용 역시 회의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0조에는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이라고 하여 입법기관의 명칭을 ‘국회(國會)’로 정해 놓았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국회라는 명칭 또한 100년 전 임시의정원에서 명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제2조에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이라고 밝혀 당시 임시의정원의 역할과 위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1925년 4월 개정된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최고 권력이 임시의정원에 있음”이라는 조문으로 여전히 담겨 있어 그 뜻을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임시의정원의 모든 활동을 기록하도록 규정했던 「임시의정원의 기록에 관한 규정」을 보면 임시의정원의회의 회의록은 속기록·의사록·비밀회의록·전원위원회회의록·기사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만 기록) 등 5종으로 구분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당시의 회의록에도 오늘날과 같이 안건의 내용뿐만 아니라 회의의 일수, 지금의 출석의원 명단과 유사하게 참가 인원의 수와 성명, 연설·보고 사항 등 부가 정보를 기재하였다는 점이다.

회의록 이외에도 임시의정원 문서에는 오늘날 국회회의록의 보존부록과 같이 임시헌법, 임시약헌, 건국강령 등의 법령 조규 등과 선언서, 결의안, 제의안, 예산결산서 등의 각종 연관 문서와 의원 당선증까지 함께 첨부되어 있다. 특히 임시정부 군무부에서 광복군 편성을 의정원에 보고한 공작보고서처럼 임시정부의 왕래문서도 포함하고 있어 보다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옛날의 기록이 오늘의 역사가 되었다. 오늘, 내일의 기록 또한 훗날의 또 다른 역사가 될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록한다.

〈참고자료〉

대한민국임시의정원문서 해제 / 진인성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 향일독립유산 문화재 등록: 도서관 속 보물 / 현은희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와 홍진 의장에 관한 고찰 / 이홍용



제26회 속기학술세미나를 다녀와서

최 초 룡



충남 태안 리솜오션캐슬에서 2018년 제26회 속기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속기학술세미나는 국회, 지방의회, 자막방송, 복지대학교, 김찰청 등 여러 분야에 있는 속기사가 한자리에 모여 속기계의 발전과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이다.

그전까지 참여했던 학술세미나가 차려진 밥상을 맛있게 먹는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밥상을 차리는 일이었다. 세미나 스태프 제의를 받았을 때는 걱정부터 앞섰는데 함께할 선배, 후배, 동기를 보니 든든했다.

세미나 당일 안내책자, 이름표, 교재, 비품 등을 준비해서 차 트렁크에 싣고 태안으로 먼저 출발했다. 세미나장에 도착하여 비품들을 정리하고 한숨 돌리는 중에 회원들이 속속 도착하였다. 거리가 좀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셨다.

이주성 회장님과 안기철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1교시는 한국스테노 이대선 전산실장님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속기산업의 발전과 음성인식 기술에 대한 대응 방향', 2교시는 국제웃음치료협회 최은미 부회장님의 '웃음으로 힐링하고 소통하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됐다.

작년 세미나에서는 김경목 인문디자인경영연구원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과 창의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는데 '사람을 배제하려고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연한 경계 짓기를 통해 공공성과 다양성을 회복하여 사람의 일을 수평 이동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나에게 너무 추상적이었다. 2017년 부서전문교육 당시 '국내의 음성인식 기술현황 및 음성인식 활용 사례'를 주제로 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님의 강의로 나에게는 너무 난해하여 와닿지 않았



다. 얼버무리는 조사, 어미, 단어는 다 다르게 들릴 수 있는데 언젠가는 이 기술이 속기 실무에 도입된다는 게 요원하게 느껴지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작년에 이어 올해는 한국스테노 이대선 전산실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속기산업의 발전과 음성인식 기술에 대한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속기산업의 해외 선진국 동향과 시사점, 음성인식의 구조와 발전 방향, 음성인식 활용 결론

파트로 나눠서 발표해 주셨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돌아켜보니 내가 속한 분야의 미래에 대해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음성인식 기술의 발달로 속기사 직업이 없어지는 것 아니

나는 질문을 종종 받은 적이 있는데 제대로 답도 못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속기 인들과 제일 가까운 분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등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내 머릿속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제대로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 속기계 발전에 애써 주시는 여러 선배님들께 더욱 감사했다. 다음 세미나에서도 깊이 있는 주제로 강의가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뒤 다음은 국제웃음치료협회 최은미 부회장님의 ‘웃음으로 힐링하고 소통하자’ 강의를 시작되었다. 조용하던 분위기는 최은미 교수님의 열정 넘치는 강의로 금세 시끌벅적해졌다. 노래와 함께 박수를 치고 짝공과 어깨동무를 하며 여기저기서 큰 웃음이 터졌다.



‘웃자’, ‘스마일’, ‘소통’을 주제로 한 강의였는데 이런 류의 강의는 시작되기 전에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듯하지만 적응되기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강의인 것 같다.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은 자주 듣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강의를 통해서 새해 다짐이었던 행복, 긍정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수업을 마치고 맛있는 돼지고기가 기다리고 있는 만찬 장소로 이동했다. 이주성 회장님과 권영진 의사국장님의 건배사로 만찬이 시작되었다. 돼지고기가 익

어 가고 한 잔씩 할 때쯤 모두가 기다리던 경품추첨 시간이 다가왔다. 다들 번호를 호명할 때마다 환호성과 탄식을 반복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서해바다의 멋진 노을을 감상하기 위해 맛있는 돼지고기를 잠시 뒤로 하고 바다로 나가 경치를 감상하고 돌아오는 회원도 있었다.



즐거운 만찬이 끝나고 아쉬운 마음에 무대가 있는 야외 테이블로 이동했다. 무대에서는 가수가 노래를 하고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은 춤을 추고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다 같이 노래하고 춤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 일찍 일어나 조식 장소를 안내하고 체크아웃을 한 뒤 김밥집과 떡집에 가서 주문한 음식을 받아 안면도자연휴양림으로 향했다. 도착하니 회원님들은



관광을 마치고 평상에 모여 쉬고 계셨다. 날씨 좋은 날 쪽쪽 뻗은 소나무 아래의 평상에 앉아 다 같이 모여서 간식을 먹으니 마치 소풍을 온 기분이 들었다.

1박 2일간 세미나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다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차에 올랐다.

그동안은 준비된 세미나에 참석만 했는데 이번처럼 직접 도와드린 것은 처음이었다. 일주일만 준비하면 똑딱 완성되는 세미나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

간 준비가 필요한 일이었고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니 구석구석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속기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으로 묵묵히 준비해 주신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올해도 역시 알차고 흥미로운 세미나를 맞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다음 세미나에도 준비한 만큼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제는 낯익은 얼굴들도 보이니 다음 세미나 때는 어색하게 눈인사만 하지 말고 맥주 한 잔 하며 통성명이라도 해야겠다.



꿈을 이루다!

강 순 오



안녕하세요?

5년간의 힘든 시간을 견디고 꿈을 이루어 낸 2018년도 신규 임용자 국회속기사 강순오라고 합니다. 아직도 국회의사당 건물을 보면 설레는 마음이 남아 있는 이때에 저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글을 쓰게 됐는데요. 지금부터 5년간 국회를 위해 달려온 저의 이야기를 적어 보려 합니다. 글 솜씨가 부족해도 예쁘게 봐 주세요!

제가 속기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교(자동차과)를 복학해야 하는 시점에 '이 전공이 내 적성에 맞는가?' 하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 분야의 일을 해 보려고 자동차 공장에 가서 일을 했었는데 제 적성과는 전혀 맞지 않았고 평생 이쪽 일을 하고 먹고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대학교 복학을 포기하고 적성과 맞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고등학교 때 알았던 속기가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해 보고는 싶었지만 키보드 값으로 인해 집안에 경제적으로 부담

이 될까 봐 시작을 포기했었지만 '이제는 성인이니 내가 돈을 벌어서 시작해 보면 되지' 하는 생각에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속기 학원에 찾아가 속기를 접해 봤습니다. 다행히 속기는 제 적성에 맞았고 심지어 재미까지 있어서 '이걸 직업으로 삼고 일하면 즐겁겠다' 하는 생각에 속기사를 제 평생 직업으로 삼을 생각을 하고 속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한 달 동안은 어디에서 일을 할지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저 속기가 재미있어서 속기 연습만 하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회에서 속기사 취업설명회를 한다는 소식을 학원 대표님께 듣게 되었고 어디서 일하면 좋을지 알아보기 위해 속기사 취업설명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취업설명회 참석을 위해 국회에 처음 갔었는데 국회를 처음 봤었을 때의 그 기분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처음 정문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국회의 규모가 크고 경찰들이 많아서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지만 안으로 들어가 분수대에서 국회의사당을 본 순간 정말 멋지다는 생각과 이곳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국회에서 일하려면 필기시험을 준비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공부에는 자신이 없어서 국회속기사를 준비해 보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국회를 보니 이곳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을 가지고 취업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취업설명회에서는 현직에 계시는 속기사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그 직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그곳에 취업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 그중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속기를 시작해서 어린 나이에 국회속기사가 되신 국회속기사 선배님의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분은 속기가 재미있다고 하셨고 국회속기사로써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에 감명을 받았고 '일을 한다면 멋진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국회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국회에서 일하고 싶다는 분명한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 국회속기사라는 꿈을 갖게 되었고 취업설명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국회의사당을 향해 주먹을 들어 올리면서 '반드시 이곳에 오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 국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국회를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데 저는 한글속기 자격증부터 따고 필기공부를 시작하자는 생각에 3급 자격증을 먼저 따고 그 이후에 속기 연습과 필기공부를 병행해서 국회에 합격하기까지 총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중 필기공부를 3년 했는데 정말 끔찍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텨 낼 수 있었던 것은 국회속기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어 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통해서 국회속기사가 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꿈을 이룬 지금 저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제 국회에 들어온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흘렀습니다. 아직은 실무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은 안 되지만 선배님들께 부족한 부분을 배우고 열심히 공부해서 한 사람의 몫은 거뜬히 해내는 속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직업인 국회속기사이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힘들 때마다 조언을 해 주셔서 제 마음을 바로잡아 주

신 학원 대표님과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신 부모님 또 끝까지 응원해 준 친구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깁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을 읽어 주신 모든 분들 항상 행복하세요!



길을 걷다

구 다 영



봉사활동에서 찾은 나의 길

저는 대학시절 워드타이핑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생소한 이 봉사활동은 종이책을 읽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 분들을 위해 책을 양식에 맞게 직접 타이핑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점자책으로 만드는 활동이었습니다. 시간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봉사활동을 2년간 꾸준히 하면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개체가 되어 도

움을 준다는 뿌듯함을 느꼈고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꾸준히 하고 싶은 마음에 봉사활동과 비슷하고 전문적인 일을 찾아보던 중 '속기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이핑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있어서는 비슷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키보드를 사용하는 등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정말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매일 학원에 나가면서 생각했던 대로 저의 적성에 딱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간 속기를 차근차근 배워 가며 목표했던 1급 자격증은 아니었지만 속기사가 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된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갈림길에서 국회를 찾다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속기사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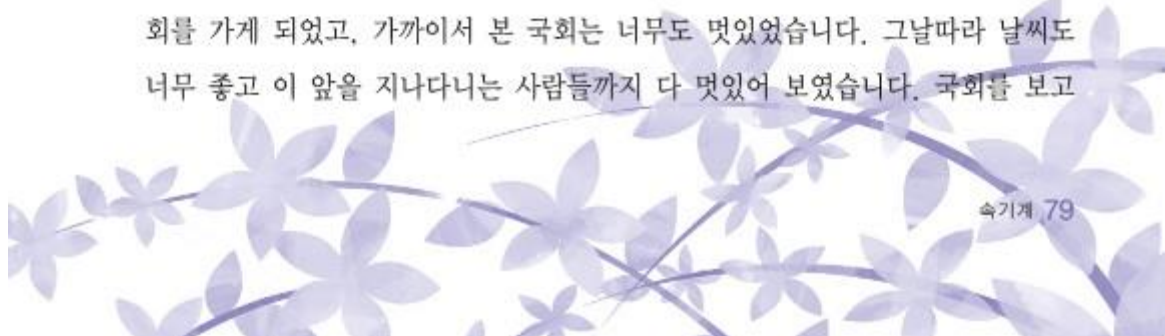
속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유사한 교육 속기도 하고 싶었고, 그저 검찰청에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에 검찰 속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을 할까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학원 선생님의 권유로 자막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속기한 내용이 바로 청각 장애인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정말 큰 책임감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야근이 잦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탓에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 일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에 적응을 해 가던 중에 자막방송 동료의 소개로 국회속기사 공고가 나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자막방송도 보람차고, 평소에 꿈꿔 왔던 다른 속기 일도 해 보고 싶었습니다. 국회는 속기사라면 누구든 한 번쯤 꿈꿔 보는 직장이기도 해 야심차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은 필기시험에는 당연히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공부를 시작한 이상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비현실적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 하루 온종일 필기 공부만 했습니다. 우선 필기를 합격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속기 기계는 기숙사에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실기를 연습하지 않아 불안감이 높아졌지만 '하나씩 해 보자' 하며 마음을 다잡고 필기시험에 열중했습니다.

너무 빈틈없이 시간을 보내니 짧은 기간이지만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하던 어느 날 인터넷으로 국회를 검색하던 중 '공부도 안 되는데 국회에 한번 가 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국회를 가게 되었고, 가까이서 본 국회는 너무도 멋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도 너무 좋고 이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까지 다 멋있어 보였습니다. 국회를 보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막연했던 목표가 명확해졌습니다. 시간을 내어 국회에 직접 다녀온 것은 국회속기사 준비에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후 필기시험을 잘 마치고 국가시험 1급과 실기시험을 앞두고 되었습니다. 필기시험 준비에만 매진한 나머지 실기를 소홀히 해 다 굳어 버린 손을 푸는 데 일주일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필기시험 3주 뒤 있던 국가시험과 한 달 뒤 있던 실기시험까지 합격하기 위해서는 속기를 쉬었던 만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만 했습니다. 학원에서 6시간 동안 속기 연습을 하고 집에서는 국회법과 뉴스로 어휘를 공부하는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속기 연습에 매진한 보답으로 실기도 정말 좋은 점수로 통과할 수 있었고, 국회 최종합격 발표날과 같았던 국가시험에서도 1급 자격증을 무사히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법의 공부를 했습니다. 나에게 어떤 것을 궁금해 할지, 나는 어떤 점을 어필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자기소개서에서 키워드를 찾아 소리 내어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물론 국회에 대한 기본 정보와 이슈들도 준비했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까지 국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뉴스들을 정독하고 또 정독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면접장에 들어가 보니 걱정들로 가득했던 날들이 무색할 만큼 면접관님들이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저에게 주는 관심과 질문들이 신기하고 감사해서 재미있게 면접을 마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국회에서의 첫 걸음

합격수기를 쓰다 보니 작년은 저에게 한없이 우울하기도 했고 또 한없이 기쁘기도 했던 특별한 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할 때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확신

이 없어 시험이 다가올수록 매일 밤을 눈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간절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고 지금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 준 것 같아 저에게는 그때의 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가 국회에 다닌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빠른 시간 안에 환경이 바뀌어서 그러는지 가끔은 꿈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연수를 받을 때는 하루하루 정신없이 지나가서 깊이 생각해 볼 틈이 없었지만, 실무에 투입이 된 후 문득 이 업무 시간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높게만 보였던 국회에 적응해 가고 좋은 사람들과 웃으며 지내고 있다는 것에 매일을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의사당 사람들'이라는 영상을 보며 '오늘의 기록으로 미래와 소통한다'라는 말이 가슴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렇듯 국회 의정기록과가 과거·현재·미래를 기록해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책을 만드는 중요한 일을 하기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님들, 예쁘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 틈 없이 달려온 국회속기사 입성기

임 나 연



20대 중반, 속기사가 되기로 결심하다

20대의 반절은 꿈을 찾아 유랑하는 마음으로 보냈고 2015년 26살이 되었다. 현실을 마주하니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비로소 들었다. 3살 위의 오빠는 변호사를 준비하면서 민법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나는 정리한 것을 한글 파일로 작성하는 일을 도와주면서 “주요 업무가 타이핑을 하는 것인 직업은 없을까?”라는 말을 꺼냈다. 예전부터 정확하고 빠르게 타이핑하는 것에 자신이 있어서 그런 직업은 없을까라는 생각에 꺼낸 말이었다. 판례들을 보면 ‘속기’라는 말이 눈에 많이 띄는데 한번 찾아보라고 오빠가 대답을 해 주었고 그렇게 속기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다. 별다른 기대 없이 꺼낸 한마디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다.

자격증을 준비하며

속기사에 대해서 알아본 지 한 달 후, 일을 하면서 모은 돈과 부모님의 지원금으로 학원 등록을 하고 동시에 키보드도 구매했다. 내가 지금 온전히 몰두하여 도전할 선택지는 속기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이었고, 2015년 3월의 봄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키보드를 배운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처음에는 긴장을 해서 어깨랑 팔도 아팠고 누르는 방식도 기존에 접해 보지 못한 방식이어서 많이 낯설었다. 그래도 재미가 있었고 자판 배열과 교재의 기본 활용형들을 제대로 익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한 글자 한 글자 느릿느릿 익히던 시기를 지나 문장을 치게 되고, 듣고 치기를 시작하게 됐을 때는 '드디어 속기다운 속기를 시작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듣고 치기 100자는 아주 느린 속도이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준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자수이지만 나에게서는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느껴졌던 것 같다.

보고 치기를 할 때는 오타 없이 문장을 치는 것, 듣고 치기를 할 때는 최대한 탈자 없이 들리는 그대로 치는 것에 중점을 두며 연습을 했고 6개월 후인 9월에 3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남은 1·2급은 일을 하면서 준비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녔다. 그것을 알게 되신 학원 원장님께서 저녁 시간을 맡는 강사로 채용을 해 주셨고 그 덕분에 일을 하면서 동시에 자격증 준비도 열심히 할 수 있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나의 기본기가 더 탄탄해지는 것을 경험했고 다음 해인 2016년 4월에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강사로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국회 합격을 위한 겸손함의 중요성

속기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국회속기사를 목표로 생각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속기를 배우면서 확실히 적성에 맞는다고 느꼈고 자격증 1급 취득 후에 국회속기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강사 일과 함께 필기 준비를 병행하다가 근무한 지 1년째 되는 17년도 1월에 일을 그만두고 필기공부에 매진을 했다.

그렇지만 같은 해 7월 국회시험에서 낙방하면서 내가 얼마나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사실 슬럼프 없이 자격증을 땀고 또 국회 필기 커트라인 점수가 다른 공무원시험 점수에 비해 낮기 때문에 수월하게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헛된 마음을 은연중에 갖고 있었음을 반성했다.

합격을 위해 다시 밑바닥부터 마음가짐을 고친 후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다. 하루하루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다. 더 이상 이렇게는 공부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모든 역량을 발휘하려 노력했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목표를 향해 가장 치열하게 준비했기에 2018년도 시험장에 앉았을 때 긴장을 너무 많이 했었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작성할 때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마킹해서 OMR 카드를 바꿨고 시험 시작과 동시에 헌법부터 풀기 시작했는데 1번을 풀고 나서 행정학 부분에 마킹을 해서 OMR 카드를 또 바꿨다. 시험 감독관분들도 나를 좀 황당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수능 때도 이렇게까지 떨지는 않았고 답안지를 바꾸지도 않았었다. 필기시험날에 한 이 실수는 창피하기는 하지만 조금 우스워서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목표하던 곳,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다

합격자 공고를 확인하고 나서 눈물과 함께 차올랐던 감정은 감사함이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 준비하는 것을 지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공부에 매진하면서 연락도 잘 못 하고 세상과 동떨어져 있던 나를 묵묵히 기다려 준 친한 친구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임을 마음속 깊이 느끼게 되었다.

의정기록과에 투입이 되고 나서 깨달은 것은 회의록을 작성하는 실무는 그동안 자격증과 국회 실기시험을 준비하면서 했던 속기와는 다른 새로운 속기의 세계라는 것이다. 그동안 준비하고 연습했던 속기는 속기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었을 뿐이고 제대로 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차원이므로 앞으로 배우고 익혀야 될 것이 많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또 어떤 조직 안에서 업무적·사회적으로 잘 적응을 한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 존경심이 생긴다. '나도 선배님들과 같은 어엿한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매일 하게 된다.

이제 업무에 투입된 지 4개월이 되어 간다. 출근할 때마다 국회의사당 건물을 멀리서부터 바라보는데 매일 무언가 새로운 마음과 자부심이 솟는 게 느껴진다. 이 초심을 마음 깊이 잘 간직하며 앞으로 선배님들의 뒤를 잇는 당당한 국회속기사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노력할 것이다.



2018년도 지방의회 속기실무자 과정

홍 보 부

I. 교육 개요

- 대상: 지방의회 속기실무자 90인
- 기간: 2018. 4. 24.(화) ~ 4. 26.(목) [3일간]
-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II. 교육 일정

날짜 시간	4. 24.(화)	4. 25.(수)	4. 26.(목)
09:30 ~ 12:00	등록 및 입교식 (10:30) 특 강 (11:00~12:00)	회의록 작성 실무 I -속기계 현황-	회의운영론
12:00 ~ 13:30	점 심		
13:30 ~ 15:20	국회속기사와의 대화 (13:30~14:40)	의회회의록과 한글 맞춤법	회의록 작성 실무 III -의회용어와 회의록 작성-
15:30 ~ 17:30	본회의장 및 헌정기념관 참관 (15:00~17:30)	회의록 작성 실무 II -회의록에 나타난 외국어 표기 사례-	수료식 (15:30~)

1. 지방의회 교육 1일 차(4월 24일)

지방의회 교육 1일 차에는 등록 및 입교식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김영필 국회의고 성연수원 교수의 특강이 있었고 오후에는 김덕진 의정기록2과장과의 국회속기사와의 대화 시간과 본회의장 및 헌정기념관 참관이 있었다.

2. 지방의회 교육 2일 차(4월 25일)

지방의회 교육 2일 차 오전에는 손숙자 의정기록2과 서기관의 '회의록 작성 실무 I—속기계 현황'이라는 강의를 이루어졌다. 오후에는 한은주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선임연구원의 '의회 회의록과 한글 맞춤법' 강의와 최운정 의정기록1과 속기사무관의 '회의록 작성 실무 II—회의록에 나타난 외국어 표기 사례'에 대한 강의를 있었다.

3. 지방의회 교육 3일 차(4월 26일)

지방의회 교육 마지막 날 3일 차 오전에는 정명호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의 '회의 운영론' 강의를 있었다. 오후에는 김영중 의정기록2과 속기사무관의 '회의록 작성 실무 III—의회 용어와 회의록 작성' 강의를 있었고 이후에 수료식을 끝으로 본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였다.

Ⅲ. 지방의회 속기사와의 인터뷰

지방의회 속기실무자 과정 교육 마지막 날 오전 강의가 끝나고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이지혜 주무관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홍보부 수업은 어떠셨는지?

이지혜 확실히 도움은 많이 되지요.

홍보부 실무적인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이지혜 실무적인 것을 얘기는 해 주시기는 하는데 여기는 국회잖아요. 국회에 대한 것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사실 지방의회에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 설명보다는 30분 정도 일찍 끝내 주시고 질문·답변 받아서 하시는 시간이

더 알찬 것 같아요.

홍보부 의회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이지혜 예, 그런데 이해는 되긴 되는 게 여기는 국회 교육이니까 저희도 국회는 어떻게 하나 궁금한 부분도 있기는 해서 그게 적절히 잘 조화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부 이 교육에는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된 거예요? 신청하신 건지……

이지혜 예, 신청해서 오는 거예요. 공문이 와요.

홍보부 세종시에서는 혼자 오신 거예요?

이지혜 예.

홍보부 교육하면서 인상 깊었던 강의 있으세요?

이지혜 인상 깊었던 강의는 첫 번째 시간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속기사와의 대화 시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홍보부 맞아요, 이런 게 더 현실감이 있고.

이지혜 질문이 하도 많아 가지고 다음 강의를 미뤄졌어요.

홍보부 저희가 딱 교육과정 봐도 이게 제일 흥미로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아쉬운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이지혜 제가 2년 전에도 이 교육에 왔었거든요. 왔었는데 그때는 의정연수원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지 않아 가지고 좀 더 집중하기가 쉬웠는데 여기는 강의실도 너무 넓고 퍼져 있어 가지고 좀…… 그때가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다 지방에서 오신 분들인데 사실 그냥 이렇게 옆에서 말 걸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성격상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두 시간 정도 할애해 가지고 지방의회 속기사들끼리 얘기하고 정보 공유하고 친목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결 조금만 해 주시면 모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홍보부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양시의회, 전국 기초의회 최초 의정기록관리팀 신설!

신효정 의정기록관리팀장님과 인터뷰

홍보부



올해 1월 21일자로 전국 기초의회 중 최초로 고양시의회에 의정기록관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주력하고 계신 모든 의회 속기사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고양시의회 의정기록관리팀을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신효정 의정기록관리팀장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홍보부 이번에 전국 최초로 고양시의회에 의정기록관리팀이 신설되었는데 그에 대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신효정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만들

어졌다는 그 자체도 기분 좋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솔직히 아쉬움이라고 그 래야 되나…… 왜냐하면 제가 92년에 입사했으니까 지금 27년 차잖아요. 그런데 팀 하나 만든 일이 기삿거리가 된다는 게 속기사 입장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 각이 들고 아쉬움이 있어요.

홍보부 혹시 신설 과정 중에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고양시의회 층별안내

5F | 시의원실, 비서실, 전문위원실, 의정기록관리팀, 의정담당관

4F | 시민안전과, 재난안전상황실, 의회영상회의실, 직장급고



신호정 많지요. 91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시행됐는데 다른 지방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전에는 워드 치시는 분들이 녹음해서 하시다가 속기사가 처음 들어 오게 되면서 회의록을 만들었는데, 저도 솔직히 자격증만 따 가지고 들어온 것이지 다 처음이기 때문에 행정 업무라든지 회의록 만드는 것을 전혀 모르잖아요. 교육을 받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속기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들어와서 회의록을 만들고 그러다가 직급이 조금씩 오르면서 6급 만들고 팀 만들고…… 아무것도 없이 무(無)에서 시작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홍보부 필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추진을 하셨는데 올해에 팀이 신설된 계기가 있을까요?

신호정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크게 조직 개편을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이 전부 5명인데 팀을 만든다고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인원을 다시 뽑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팀 소속이었다가 분리되어서 나오는, 그냥 직제만 팀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수월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다른 시군에는 있는 데가 없다는 이유로 안 해 주려고 해서 많이 힘들었지요. 하지만 없더라도 처음에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고양시가 인구도 105만 정도 되어서 많고 하니까 의장님이 어필을 많이 해 주셨어요.



홍보부 지금 현재 1인 1위원회 체제인 것 같은데 의정기록관리팀의 구성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신호정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위원회가 2개였어요. 그래서 티오가 2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위원회가 하나둘 늘어나면서 직원도 더 뽑고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

회까지 5개예요. 한 위원회별로 1명씩입니다.

홍보부 한 분이 속기부터 번문까지 다 책임지고 하시는 건가요?

신효정 예,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회의록의 앞표지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속기한 것을 번문해서 교정 보는 것, 출석의원 체크까지 다 해야 돼요. 하물며 안전에 대해서 시장 제출 안전인지 의원 발의 안전인지 다 찾아서 앞장과 맞추어서 자료 첨부까지 챙긴 후 인터넷에 올리는 것까지 전부 다 해야 돼요.

홍보부 정말 총괄이시네요.

신효정 예, 진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모르면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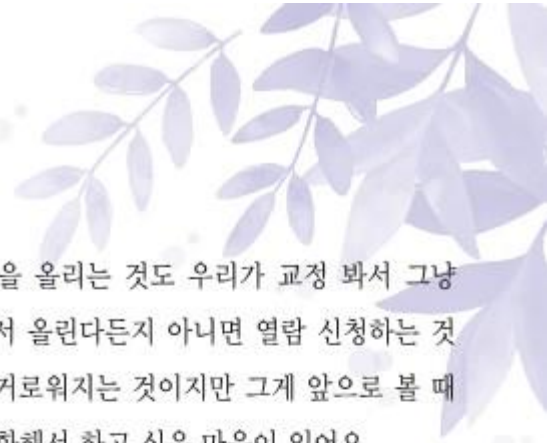
홍보부 1인 1위원회를 담당하다 보니까 전문성과 정확성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효정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도 한 위원회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업무 파악 차원에서 1년마다 로테이션을 해요. 보통 7월 정도에 한 바퀴씩 돌아요. 왜냐하면 예결위 같은 경우는 속기사가 돌아가면서 들어가는데 건설교통위나 이런 데는 전문용어도 많이 쓰니까 자기 부서의 업무만 알고 있으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4명이니까 한 대수에 한 번씩은 도는 것 같아요.

홍보부 의정기록관리팀이 신설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신효정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체계를 잡아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의사팀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팀장님도 계시니까 생략된 대로 업무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임시회의록을 올리는 것도 우리가 교정 봐서 그냥 올리고 했었는데 그런 것을 결재를 받아서 올린다든지 아니면 열람 신청하는 것도 신청서를 받아서 한다든지…… 좀 번거로워지는 것이지만 그게 앞으로 볼 때는 바람직한 것 같아서 속기 업무를 세분화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홍보부 그렇다면 의정기록관리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요?

신호정 아까 말씀하셨지만 회의록이 그다음 날 바로바로 올라가는 신속성이 있으면 좋은데 인원의 한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까지 서비스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본인이 속기한 것을 본인이 교정을 보면 몇 번씩 봐도 잘 안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업무를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속기 업무의 체계화나 틀을 잡아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부 의회 속기사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호정 토막토막 회의를 들어가면 내용이 뭔지 솔직히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다 하니까 행정이라든지 회의의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파악할 때 정확히 알 수 있어서 그런 것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보부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의회 속기사로서 갖춰야 될 자질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신호정 속기만 해 가지고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본인이 알아들어야 잘해 놓을 텐데 자기가 모르면 이게 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국어 능력이라든지 문장 이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속기 자격증을 따면 좋겠는데, 단순히 속도만 중시하면 워드하고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도 신규 직원들을 보면, 한 삼사 년 전에 들어왔는데 말을 잘 못 알아듣

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말하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좀 다르잖아요.

홍보부 의회에도 회의록 편람이 있나요?

신효정 제가 지금 그것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의회 회의록 작성 편람이나 국회 회의록 작성 편람을 저희가 많이 찾아보고 하거든요. 또 용역을 쓸 때 편람을 만들어서 주면 회의록을 만들기에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것은 있는데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어서 장기 계획으로 편람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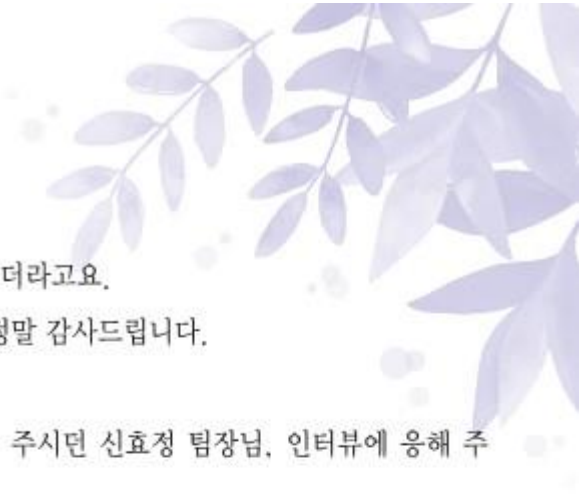
홍보부 고양시의회 의정기록관리팀이 전국 기초의회 최초이기도 하지만 또 최초의 팀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책임감과 부담감도 있으실 테고 계획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다른 의회나 의회 속기사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신효정 저 같은 경우는 고양시의회에 처음으로 들어온 속기사이고 평생을 고양시의회 속기사로서 근무를 했는데 뭐라도 하나 남겨 놓았다는 마음도 생기고 또 후배를 위해서 팀을 하나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뿌듯한 마음도 있어요. 팀 만든 게 없어지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고양시의회를 필두로 해서 다른 의회도 계속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수락을 한 것이거든요. 솔직히 제가 나서고 이런 입장이 아닌데, 그래서 약간의 자극 같은 의미로 다른 의회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홍보부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신효정 속기사가 앞으로 제대로 대우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위원회별로 2명씩은 있어서 1시간씩 교대로 들어간다면지 했



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홍보부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후배 속기사들의 미래까지도 걱정해 주시던 신호정 팀장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유럽 해외국감을 다녀와서

황 유 진

2018년, 입사 15년 차가 되었다. 매년 선·후배와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 가던 국정감사였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머나먼 외지에서, 그것도 혼자서 속기를 해야 하는 해외 국정감사를 가게 된 것이다. 만약 외국에서 속기 기계, 녹음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불안감이 들었으며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해외 국정감사를 다녀온 선배들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2018년 구주반 국정감사는 영국·튀니지·포르투갈·독일·그리스·러시아, 6개국 재외공관이 대상이었으며, 감사위원은 모두 6명이었고 국회 직원 3명과 외교부 직원 1명이 함께 수행하였다.

국정감사 첫날, 공항에서 팀원들을 만나 서먹서먹한 분위기에서 비행기에 올랐다.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에 오히려 출발하기 전에 부담감이 컸던 것 같다. 11시간의 비행시간을 거쳐 런던에 도착하였는데 긴 비행시간 탓에 몸이 천근만근인데 다행히도 영국대사관 국정감사 일정은 다음 날이라고 한다.

영국대사관 청사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라 숙박하고 있던 호텔에서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영국이 막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하고 EU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던 상황이라 회의 내용은 거의 브렉시트에 대한 질의응답이었다. BTS 등

한류 문화와 관련한 질의 내용에는 더 귀가 쫑긋해졌다.



영국대사관 국정감사 모습

영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나고 영국의 국회의사당으로 출발하였다. 10년 전 자을훈련으로 영국을 여행하였을 때 웨스트민스터 내부를 보지 못해 아쉬웠었는데 의사당 내부 시찰을 한다니 매우 기대되었다. 엄

격한 보안검색대를 거쳐 국회의사당 내부로 들어오는 순간 영화 해리포터에서 본 듯한 신비한 모습에 매료되었다. 영국 국회의사당 내부는 화려한 외부 모습과는 다르게 엄숙하면서도 전통적인 모습을 간직하였는데 아쉽게도 사진 촬영은 금지였다. 상·하원 본회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국회의사당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

의장에는 특이하게도 천장에서부터 선을 매달아서 연결한 마이크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는데 속기를 위한 것이라는 해설을 들을 수 있었다.



튀니지 국정감사 일정 중 팀원들과 함께

튀니지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튀니지에 쌀과 배추가 생산되지 않아 본국에 주문을 해야 하는데 생필품 지원 쿼터가 부족하여 외교관들이 쌀과 김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는 얘기에 그들의 고충이 느껴졌다. 튀니지는 2015년 유명 박물관에서 발생한 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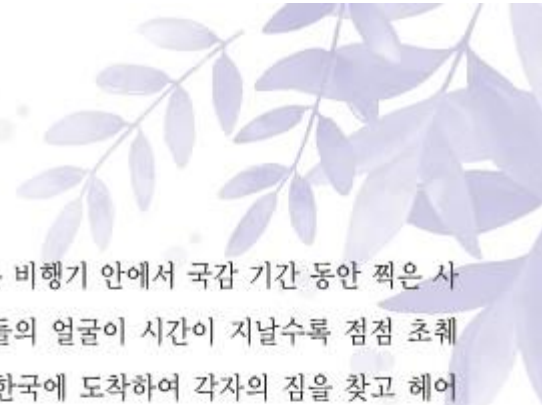
테러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로 인해 황색경보(여행자제) 지역으로 분

류되어 있어 경호원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해야 했다.

독일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독일이 통일을 이루게 된 과정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 독일 통일의 경험에 우리가 본받을 부분도 있지만 반면교사로 삼을 부분 역시 많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리스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해양산업과 서울-아테네 간 직항편 개설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대사관에서 양국간 해양협력 포럼을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그리스 직항편이 개설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구주반 국정감사에는 제헌국회 이래 처음 국정감사를 받는 나라도 있었고 국감을 자주 받지 않는 나라가 많아 녹음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을지 의문이었는 데 재외공관에서 잘 준비해 준 덕분에 업무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국감 기간 동안 힘들었던 건 시차 적응에 실패해 새벽 2시마다 자동적으로 눈이 떠졌다는 것,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약 한 통을 다 먹고도 낫지 않는 감기, 그리고 튀니지에서 시속 120km로 달리던 승용차 안에서 멀미 때문에 난감했던 순간이다. 그날 멀미약을 챙겨 간 건 신의 한 수였다.

해외 국감에서는 각국의 재외공관에서 열리는 국정감사 속기록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외교통일위원회 직원의 의원 수행 업무를 보좌해야 하는데 그동안 의정기록과에서 회의록 작성 업무에만 종사해 왔던 나로서는 위원회의 행정실무를 조금이나마 경험해 볼 수 있고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12일간의 국감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국감 기간 동안 찍은 사진을 정리하는데 첫날 생생하던 수행원들의 얼굴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초췌하게 변하는 모습에 웃음이 빵 터졌다. 한국에 도착하여 각자의 집을 찾고 헤어지는데 웬지 짠했다. 수고했다는 말보다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아시아 해외국감을 다녀와서

정 숙

국회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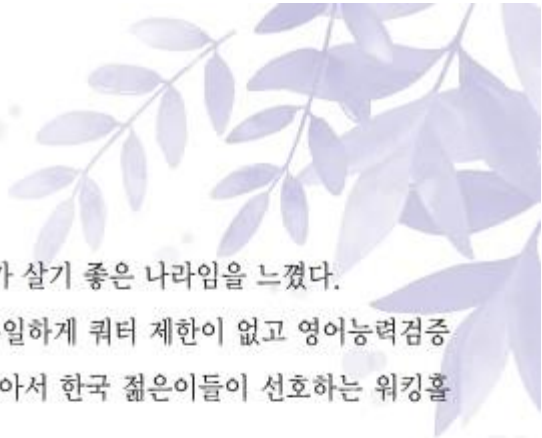
2018년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였고, 그중 필자가 다녀온 외교통일위원회의 아주반 국정감사는 인도네시아·호주·일본·중국·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었다.

기대와 설렘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이 혼재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된 필자의 해외 국정감사 첫 대상공관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였다.



대사관이 있는 자카르타 지역은 연중 30℃를 유지하는데 습도까지 높아 숨이 턱 막힐 정도였다. 분명히 건물 내 에어컨이 있었음에도 재킷 안에서 흐르는 땀을 식히지는 못했다. 그렇게 3시간 동안 속기를 하고 나니

나는 누구고, 이곳은 어디이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런 날씨에도 수질오염 때문에 시원한 아이스 음료를 아무 곳에서나 쉽게 구매할 수 없



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 번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임을 느꼈다.

두 번째 대상공관은 영어권 국가로서 유일하게 쿼터 제한이 없고 영어능력검증 및 보험가입의무가 없으며 최저시급이 높아서 한국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워킹홀리데이 국가인 호주였다.

호주, 언젠가 한번은 방문하고 싶었던 나라였는데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마치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처럼 시드니 거리를 여유롭게 조깅하는 상상을 해 봤었는데 현실은 보안이 강한 대사관 회의실에 앉아 숨죽이며 자판을 두드리는 내 모습이었다.

우리가 방문했던 시기에 마침 시드니한국문화원에서 한국의 젓가락 문화를 소개하는 '젓가락 향연' 전시회가 진행 중이어서 관람할 기회가 있었다. 젓가락을 주제로 청주지역 80명의 작가가 참여해 만든 작품, 문화상품 등 500여 점과 영상물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중일 3국의 젓가락 문화를 비교해 두었던 전시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이 있는 분은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추천하고 싶다.



세 번째 대상공관인 일본은 매년 국정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1박 2일의 짧은 일정으로 진행됐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일본과 과거사 문제 그리고 여타 분야 실질협력 추진이라는 두 트랙 외교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 위안부 문제 또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재판과 같은 과거사 현안이 계속해서 제기됐기 때문에 일본대사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4시간 가까이 이루어졌다.

해외국감을 가면 서너 시간 동안 속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막막했었는데 3시간가량의 속기를 두 번 정도 경험하고 나니 4시간의 속기도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다.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다.

아주반은 다른 두 반처럼 이동거리가 멀지 않은 관계로 한 번 입국을 했다가 다시 출국을 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인도네시아·호주·일본에 대한 일정을 마친 후 짧지만 꿀맛 같은 2일간의 휴식을 마치고 다시 네 번째 대상지인 중국으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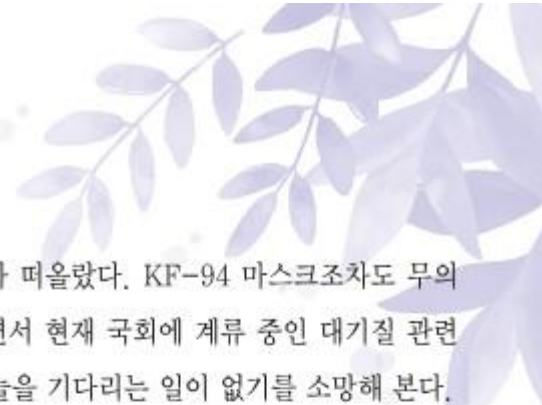
인구 14억 2000만에 달하는 필자가 경험해 보지 못한 대국, 하지만 기대와 달리 비행기에서 내린 베이징의 모습은 미세먼지로 인해 회색빛으로 둘러싸인 죽은 도시 같았다. 전날까지만 해도 파란 하늘이 보였다는 대사관 직원의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사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중관계는 작년 10월 말 양국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12월 문재인 대통령 방중 이후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하던데 국정감사장에서의 공기는 팽팽했던 것 같다.

숙소와 회의장 외에는 다른 곳을 둘러볼 여유도 없이 1박 2일의 일정을 소화하고 10년 만에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했다.

2008년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정식 국정감사가 아닌 업무보고 형식이었다고 하니 대사관 입장에서는 올해의 국정감사가 정말 뜻깊었다고 한다. 그만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닐까?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표적인 환경재앙으로 알려진 아랄해의 사막화 현상과 염화 현상 때문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하원의원 150명 중 15명을 환경전문가로 뽑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가 떠올랐다. KF-94 마스크조차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우리나라의 대기질을 보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질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 국민들이 파란 하늘을 기다리는 일이 없기를 소망해 본다.

선배들의 휴직으로 인해 마음의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갔었던 해외 국정감사였다. 한편으로는 숙제를 한 것 같은 후련함과 조금 더 철저히 준비했다면 미숙했던 부분들이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 국정감사는 그렇게 큰 에피소드 없이 종료됐다.

앞으로 남아 있는 알 수 없는 국정감사들을 통해 더욱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52회 정기총회

대한속기협회는 2019년 1월 24일 목요일 18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린 이번 정기총회는 이동준 총무재정이사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및 성원보고가 있었고, 제26회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 시상식이 있었다.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 입상자는 금상 서원식 회원, 은상 신현진 회원, 동상 정지은 회원으로 시상은 이주성 회장이 해주셨다.

다음으로 이주성 회장의 인사말씀이 있었고, 신임 이사장으로 김덕진 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안내가 있는 후 안기철 전임 이사장과 김덕진 선임 이사장의 인사말씀이 있었다.

이후 회의는 김덕진 이사장의 주재하에 진행되었는데 먼저 제232차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새로 선임된 신임 이사와 부서장을 소개하였다. 이사에 한순덕·김한우·신은경 회원, 부서장에 사업부는 이미정, 회원부는 김경재, 홍보부는 김영중, 국제부는 조미경, 자격심사위원장은 이봉선, 연구위원장은 이경숙 회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렸다.

그리고 이경식 지도위원, 고경효·권영찬·김란희·안기철·이순영 부회장, 정상택 이사를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회무보고를 이의 없이 접수하고 통과시킨 다음 부의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첫 번째 부의안건인 2018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김덕진 이사장으로

부터 결산서 설명을 들은 후 김점동 감사의 감사보고를 듣고 이에 대해 전 회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두 번째 부의안건인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이 사장의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는 후 이에 대해 전 회원 이의 없이 찬성함에 역시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세 번째 부의안건인 감사 선출의 건을 상정한 후 감사선임 방법을 집행부의 복 안을 들은 후 찬성하면 박수로써 통과시키자는 강은실 회원의 동의가 있었고 이 에 전 회원이 재청하여 감사에 김점동·손숙자 회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네 번째 부의안건인 기타 사항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이상 4건의 부의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친 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제52회 정기총회를 폐회하였다.



편집후기

여의도에서의 1년은 4월의 봄꽃과 10월의 정기국회로 기억되곤 합니다.

정기총회와 세미나, 인터스테노로 대표되는 대한속기협회의 지난 1년을 한 권의 책에 담아 정리하는 그릇이 바로 '속기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속기'라는 인연으로 맺어진 한 식구의 이야기를 따뜻하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끄럽지만 55호 속기계를 내놓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협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 김영중

이번 제55호 속기계 편집에 참여하며 속기인들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호에는 더욱 충실한 속기계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홍보부 이사님, 기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처음이라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유진

어느덧 세 번째 속기계네요. 올해 새롭게 바뀐 홍보부 이사님, 부장님 또 기자님들과 이번에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감사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 김진주

항상 받아만 보던 속기계에 편집후기를 쓰려니 느낌이 참 새롭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많은 도움이 되지도 못했는데 후기를 남긴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네요. 제 부족한 몫만큼 더욱더 수고해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부끄러움을 잊지 않고 내년에는 더욱더 분발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서진

속기계를 만들면서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좋으신 분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사님, 부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 홍상현

입사 이후 두 권의 속기계를 받아 봤는데 그때는 이 책 한 권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줄 미처 몰랐습니다. 아마 이 속기계를 받아 들면 백과사전보다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 쓰는 일은 항상 어렵고 두렵지만 막상 완성이 되었을 때는 그 자체로 하나의 보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과 시간이 빚어낸 수많은 보물들, 예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라는 핑계로 많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즐겁고 편하게 격려하며 이끌어 주신 이사님과 홍보부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이보람

투고를 바랍니다

속기계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 상호 간의 유대와 속기 연구 발표의 창구 노릇을 함으로써
속기 문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책임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생각과 정성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야겠지요,
저희 홍보부에서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글을 환영합니다.

보내실 곳 대한속기협회 홍보부

홈 페이지 www.k-steno.com

이 메 일 khmj888@assembly.go.kr

내 용 표지 그림 · 사진, 연구논문, 수필, 회상기, 시,
시조, 산문, 기타 제언 등



회비 납부 안내

회 비 1년분 20,000원(가입비는 10,000)
협회발전기금 30만 원 이상을 납부한 회원에게는
평생회원으로로서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보내실 곳

회 비 농협 301-0160-1418-81 대한속기협회
협회발전기금 농협 036-01-083485 대한속기협회

속기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변문한 원고에 책임을 진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제55호 속기계

발행 2019년 5월

발행인 이주성

편집인 김영중

기자 이유진, 김진주, 이서진, 홍상현, 이보람

발행처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디자인·인쇄 동국상사 (02)362-3851

홈페이지 <http://www.k-steno.com>

비매품